

ACCÈNTI 01

아첸티

---

COREA

GLI SCRITTI DELLA CIVILTÀ CATTOLICA



# ACCÈNTI

---

아첸토(L'accento; 강세, 아첸티의 단수)는 한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 중 하나를 강조하여 그 발음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1850년 이후로 중단 없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온 『치빌타 카톨리카』는 특정한 주제를 성찰하고 모은 특별판을 시리즈로 출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의 중요한 주제나 특별한 가치의 영감 넘치는 주제를 강조하는 이 시리즈의 이름을 “아첸티(Accènti)”라고 정한다.

아첸티는 과거의 성찰을 현대에 제시하고,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잊었던 동기를 일깨우는 키워드를 찾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바람은 과거를 돌아보고 여전히 지혜를 주는 이전의 글들을 다시 게재하여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한국어판 특별호

교회인가 서울대교구 2017년 2월 13일

발행일 2018년 9월 8일

발행인 김용수

발행처 도서출판 이나시오영성연구소

주소 04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길 11-8 (신수동)

전화 02-3276-7799

구독 및 구입 문의 02-3276-7700



# 목차

03 발간사—『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별판을 발간하면서

---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S.J. 옮김

05 축사—『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별판을 환영하면서

---

정제천 요한 S.J.

## 오늘날의 도전

07 역사적인 만남들과 외교적 줄다리기 사이에서의 한반도의 상황

---

김연수 스테파노 S.J.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 오경택 안셀모 옮김  
/ 서정화 루시아 감수

23 한국의 현재와 미래: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와의 인터뷰

---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 안봉환 스테파노 옮김

36 교종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 돌봄, 공감, 위로

---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 이창준 로사리오 S.J. 옮김

55 촛불혁명 이후 한국

---

오세일 대건 안드레아 S.J. / 박경웅 베드로 S.J. 옮김  
/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S.J. 감수

## 한국의 문화 속으로

67 한국 무속의 영성

---

다니엘 키스터 S.J. / 김민 요한 S.J. 옮김 / 조현범 도마 감수

83 이문열의 신학 스릴러

---

페르디난도 카스텔리 S.J. / 김민철 요한 S.J. 옮김 / 김유진 카타리나 감수



발간사

『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별판을 발간하면서

PRESENTAZIONE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치빌타 카톨리카』 편집장)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S.J. 옮김

유구한 한국 역사의 뿌리는 심원하고 생동적이다. 그 역사는 국경의 의미를 말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국경,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경계는 평화로운 문화와 경제 교류의 창구인 동시에 비극적인 폭압의 장소였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 간의 냉전의 긴장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세기 후반의 지정학적 관점이 여전히 그 영토 안에 새겨져 있다. 반면, 한국은 종교인의 감수성과 사회생활의 근간을 형성하는 무속, 불교, 유교와 같은 오래된 다양한 종교 전통이 한데 어우러진 나라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일치라는 명목으로 상호차이를 부정하거나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토양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서 살아왔지만, 그 땅에 배어 있는 수많은 정치 이념의 양극화와 대립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아가는 소명을 받았다.

이 복잡한 역사적 현장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운 그리스도교가 아주 고유한 방법으로 평신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성장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7세기 초반부터 중국에 머물던 조선의 사신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만나서 종교 문제를 논의했다. 이 사신들은 아시아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작성한 서적을 입수하였다. 특히 예수회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신부의 저서 『천주실의』(1603)에서는 유교를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길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대비와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 지정학적 긴장이 있고, 장벽과 교량의 역할이 교차하는 이 영토는 오늘날 세계의 국경이자, 여러 세력의 분열과 통합의 정점이 되었다.

2018년 4월 27일은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제3차 정상회담을 가진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2000년과 2007년에 개최되었다. 2000년 6월 15일에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양측은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 협력, 항공, 도로 및 철도 연결, 공식 종전 선언, 상호 불가침 원칙 재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8개 항의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긴장 해소의 표시로 남북한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의 개최식에 3차례 공동 입장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공동 입장이 재현되었다.

남한과 북한의 뒤에는 언제나 미국과 중국이 존재한다. 김 위원장이 추진해 온 핵 확대 전략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포함한다.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드라마는 극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빌타 카톨리카』는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함께하며 동반하였다. 이 “아첸티(Accènti)” 시리즈의 첫 번째 특별판에서는 독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원고를 모았다. 최근의 내용을 다룬 글과 현재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과거의 원고를 모아서 다시 게재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의 문화와 종교를 성찰함으로써 백성의 영혼을 표현하는 이 교양지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 축사

### 『치빌타 카톨리카』의 한국을 주제로 한 특별판을 환영하면서

정제천 요한 S.J. (예수회 한국관구장)

2017년 대한민국은 세계 뉴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촛불혁명의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계속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극단의 상황을 연출했던 한반도가 새해를 맞으면서 전혀 판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번영의 새 그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기도와 메시지를 통해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눈이 되고 싶은 『치빌타 카톨리카』(‘가톨릭 문명’이란 이탈리아어)가 170여년 역사상 최초로 특별판을 기획하였는데, 한국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편교회가 한국 교회와 사회에 응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종 프란치스코의 활약에 힘입어 이 세상이 강자와 약자, 갑과 을의 전장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나만 아는 부자가 되느냐, 더불어 사는 가난을 택하느냐를 두고 일대 결전을 벌이는 전장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길을 한반도만큼 선명하게 보여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파괴와 이익의 극대화를 옹호하는 현대 문명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공존과 평화, 상호지지와 번영을 위한 사랑의 문명을 이 땅에 이룩하려는 가톨릭 지성이 한반도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한반도에서 발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한국 특별판을 기획하고 출판하신 『치빌타 카톨리카』의 편집장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도전  
LE SFIDE DI OGGI



# 역사적인 만남들과 외교적 줄다리기 사이에서의 한반도의 상황

LO STATO DELLA COREA

Tra incontri storici e altalene diplomatiche

김연수 스테파노 S.J.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공저

오경택 안셀모 신부 옴김 (춘천교구, 묵호본당 주임신부)

서정화 루시아 감수 (이나시오영성연구소)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다. 회담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제안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과업을 확인하는 합의된 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남북정상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을 북한 최고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한국 사회와 국제 정세 전문가, 그리고 가장 회의적 견해를 지닌 이들까지도 감격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반도의 경계선 안팎에서 진행되는 평화화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 한반도의 두 정상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신뢰 형성

문재인과 김정은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두 통치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세 번째 회담이었다. 앞선 두 회담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회담은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Casa della pace)”에서 개최되었다. 남북 분단 이후 북한 지도자가 판문점을 통해 남한 영토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군사분계선 위에 있는 판문점은 1953년 남과 북 사이의 군사 활동을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분계선에 이르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따뜻하게 맞으며

물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위원장님의 큰 용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쯤 북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서로 손을 잡고 남측에서 북측으로 경계선을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고 공식 환영 인사를 이어 갔다. 두 정상은 내내 따뜻하고 우호적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였다.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다리 위에서 30분 정도 배석한 사람 없이 가졌던 벤치 회담이었다.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여론조사에서 77.5%의 응답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가 간다고 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86.3%에 이르렀다. 그리고 88.7%가 남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sup>1)</sup> 이러한 조사 결과는 대중 안에 화해에 대한 희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회담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5일 알현에서 강한 호소와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동행했다. “평화를 열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저의 개인적인 기도와 함께, 온 교회가 곁에서 동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좌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자 남북의 만남과 우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유용하고 진실된 발걸음에 함께하며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신 분들에게, 평화의 ‘장인’으로서 희망이라는 용기를 지니시기를 청합니다. 또한 모든 이의 선을 위해 시작한 이 여정을, 신뢰를 지니고 추진해 나가기를 권고합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이 국제 관계 안에서 장려하고 2014년 한국 방문 이후로 한반도에도 적용한 “만남의 문화(cultura dell'incontro)”에 최근 한반도의 변화가 상응하고 있어 고무적이다.<sup>2)</sup>

1)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93810\\_22663.html](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93810_22663.html)(접속일: 2018.8.11).

2) 참조. A. Spadaro, 『Il nuovo mondo di Francesco. Come il vaticano sta cambiando la politica globale』, (Venezia: Marsilio, 2018); 같은 이,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nella Repubblica di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 in *Civ Catt.* 2014 III 403-418; 같은 이, «Presente e futuro della Corea. Intervista a mons. Hyginus Kim Hee-jong», ivi 2017 IV 766-777). 편집자 주. 여기서는 주교회의가 번역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간청”을 인용하여 실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 2018년 4월 25일(수) 일반 알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 요청」,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13324&page=3&key=&keyword=&cat=](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200&bid=13013324&page=3&key=&keyword=&cat=) (접속일: 2018.8.6).

## 판문점 선언

남북정상회담의 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DP: Dichiarazione di Panmunjom per la pace, la prosperità e l’unificazione della Penisola coreana)”이라는 제목의 문헌이 발표되었다.<sup>3)</sup> 선언문 1조는 두 지도자가 이루고자 하는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과업을 담고 있다. 2조에서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3조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를 드러낸다. 이 평화체제는 “단계적으로 구축”을 실현하면서,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이루어진다.

비록 한국인 상당수와 국제 매체들이 이번 회담에 대해 찬사를 보냈지만, 일부는 의문과 당혹감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스는 2018년 4월 27일에 “북한과 남한의 정상회담, 쇼는 길었지만, 구체성은 적었다”<sup>4)</sup>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왜냐하면, 이 두 지도자가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쩌서 이 두 지도자가 구체적 방안을 합의할 수 없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1953년 7월 27일에 있었던 정전협정은 북한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한반도의 이 두 지도자만으로 한국전쟁을 종식한다는 공식적이고 고유한 선언문을 발표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식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종전 선언과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

3) 선언문은 [www.korea.net](http://www.korea.net) 에서 발표되었다. 편집자 주. 한국어 전문은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http://www.unikorea.go.kr/unikorea/news/live/?mode=view&cntId=54511%20> (접속일: 2018.8.12)).

4) R. Goldman and Choe Sang hun, 『North and South Korea Summit Is Short on Details, but Long on Theater』, in 『The New York Times』, (2018. 4. 27). [www.nytimes.com/2018/04/27/world/asia/north-korea-south-border.html](http://www.nytimes.com/2018/04/27/world/asia/north-korea-south-border.html) (접속일: 2018.8.12).

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DP 3.3).

무엇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DP 3.4). 문 대통령은 이 남북회담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놓는 역할을 하리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다. 5월 9일 문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의 총리들을 만났다. 5월 8일에는 김 위원장이 북한과 근접한 중국 북부 항구 도시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한반도와 관련한 정치 외교 상황의 전개에서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두 달 사이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5월 22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네 번째로 만났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 방안이 아닌, 단순한 지향들만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 두 지도자는 몇몇 특별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안에는 2018년 아시안 게임 공동 참가와 2018년 8월 15일에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계획이 있다. 이들은 결정되어야 할 모든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고무적인 결정들을 이어갔다. 예를 들면 5월 1일 남과 북은 약속대로 군사분계선의 대남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장비들을 해체하였다. 그리고 5월 5일 북한은 남한보다 30분 늦던 평양 표준시를 서울 시각과 일치시켰다. 정상회담 중에 김 위원장은 표준시를 예전처럼 통일시키되, 북한에서 바꾸었던 것이니 다시 남한과 일치시키겠다고 언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남북한 음악인들은 4월 3일 평양에서 함께 공연했다. 그리고 북한과 남한에서 어릴 적부터 배우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il nostro desiderio è l'unificazione*)”을 노래했다. 수많은 적대행위와 비극적인 사건이 남북한 사이에 계속되었지만, 이들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잊은 적이 없다.

정상회담 직후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남한 사람들의 75.5%가 통일이 필요하다

응답하였고,<sup>5)</sup> 73.3%는 30년 안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다.<sup>6)</sup>

남북한의 많은 이가 두 지도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꼽는다. 1950~1953년의 전쟁 이후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천만 명이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방문할 수도 없었고, 많은 경우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85년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21회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만이 하루 혹은 이틀 동안 만날 수 있을 뿐이었다. 2015년엔 남한에서 13만 명이 정부에서 마련한 이산가족 상봉 참여를 신청하였다.

### 얼어붙었던 10년, 그 이후의 정세 변화

남북한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평화적 물결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회상한다.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2007년에 두 번째로 이어졌다. 그러면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과업에 전적으로 대치되는 시기였던가?

이명박(2008~2013)과 박근혜(2013~2017) 대통령 재임 동안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급기야 이전의 정상들이 이루었던 합의까지 무효가 됐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다. 남한에서는 이 대통령이 2010년 비무장지대 근처의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한의 모든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그 이후 박 대통령은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긴장은 계속해서 증대되었고,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어졌다. 2016년 박 대통령은 급기야, 2002년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어왔고 남북한 교류의 관계의 마지막 남은 자산으로 여겨지는, 개성공단의 폐쇄를 결정한다. 이는 마지막 남은 소통과 교류의 자산이었고, 공단이 해체되자마자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다.

---

5) [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c59a3264-4fe1-4f08-9595-f195e0db1bed](http://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c59a3264-4fe1-4f08-9595-f195e0db1bed) (접속일: 2018.8.12).

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42525> (접속일: 2018.8.12).

2017년 “촛불혁명(Rivoluzione delle candele)”<sup>7)</sup> 직후 문재인 대통령 정권 초기에 국민 대부분은 남북한 관계가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희망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김정은 현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임기 첫해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길을 찾았다. 그러나 북한은 그의 이러한 노력들에 응답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 이후 소형 수소폭탄이 준비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결국,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호,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평화로운 대화들을 향해 결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얻어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신년 인사에서 전환의 가능성을 드러냈다. 핵 프로그램 완성을 선포한 후 2018년 신년사에서서는 하나의 깃발 아래 경기를 치르자는 문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들이면서, 남한에서 치러질 평창 동계 올림픽(2018년 2월 9~25일)에 북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이루어졌다.

올림픽 폐막 이후 한 달이 지난 3월 말, 김 위원장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방탄 열차에 올라, 공식적인 첫 해외 순방을 떠났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초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순방에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 여사와 수행원들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에게 미국과 공식 외교 관계를 시작하고, 북한에서 비핵화 절차가 착수되기를 원하며, 남한과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길을 구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5월의 답보 상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있었다. 4월의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하면

7) Seil Oh, «La Corea del Sud dopo la “Rivoluzione delle candele”», in *Civ, Catt*, 2018 124-136.

서부터 남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 열쇠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그 당시 아직 내정자였던, 전직 CIA 국장—는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김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하였다. 이는 미 정부 관계자가 확인해 준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이 소식을 밝혔다.

미 정보국에 있었던 폼페이오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몇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온전히 외교술에만 기인하지 않기 때문이다.<sup>8)</sup> 폼페이오는 이어서 5월 8일, 두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sup>9)</sup> 그리고 그다음 날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세 명이 자유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소환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선한 의지의 행동이라 정의하며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상대를 향한 비난이 오가다가 즉각 화해와 봉합이 이루어지는 등 반대되는 사건들이 번갈아 일어났다. 공식 발표나 트윗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미디어의 불안정한 반응을 부채질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성사된 역사적 만남으로 이어진 사건들과 전체적 상황을 이해하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5월 11일 북한은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할 것이며, 추가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는 없을 것이라고 UN에 알려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과 회합하던 중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 결정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측은, 북한민항총국 사무차장 리용선의 약속에 따르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므로 미사일 발사 실험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밝혔다. 이는 결코 부차적이라 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이다.

그 즉시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 알렸다. 이는 강도를 폭파하여 입구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이 결정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날 때 김 위원장이 요약한 이행 사항에 들어 있었던 내용이다.

8) M. Landler, “Spies, not diplomats, take lead role in planning Trump’s North Korea Meeting”, *The New York Times*, (2018. 3. 16).

9) 폼페이오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북한을 방문한 인물로 세 번째이다. 2000년에 미 국무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여 현 북한 지도자의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14년, 미 국가정보국 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북한에 억류 중인 두 미 국민의 석방과 정찰총국장과 만남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에서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장 폐기는 남한, 중국, 미국, 영국, 러시아에서 온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몇 분석가들은 이 소식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미 지난 핵 실험 이후 실험장 일부가 붕괴되어 안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실험장 폐기는 분명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징조였다.

그러나 5월 16일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긴장이 일어났다. 북측은 6월 12일로 예정되었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하기로 했던 남측과의 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하였다. 그 지역에서 얼마 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취소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남한의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긴급한 통화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있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가 계속 진행되어야 함을 서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 역시 그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는 계속되어야 함을 주시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리비아 모델(modello libico)”<sup>10)</sup>을 적용한다는 생각을 배격했다. 이 모델은 북미회담 일주일 전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하였다.

5월 19일에는 긴장을 완화시킨 소식이 들려왔다. 제네바 주재 북한 유엔 대사 한 태성은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은 “전 세계 군축에 중요한 과정(è un importante processo verso il disarmo globale)”이고, 북한은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열망과 노력에 동참할 것(si unirà al desiderio e agli sforzi internazionali per il blocco totale ai test nucleari)”을 선언했다.

초조함도 섞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급변하는 정세의 파고가 이어졌다. 5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 맞이하며 6월 12일에 있을 정상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만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사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에 이 일은 성사되기는 하겠지만, 그 날이 아닐 수도 있습

10)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자신의 선택으로 핵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개발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니다. 그리고 나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 태도가 바뀌리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5월 8일에 다렌을 방문했을 때 중국 주석이 그를 유도하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했음을 비난하는 발언이었다. 북측은 미국에게 “끔찍한 비극을 맛볼 수 있을 것(assaporare una terribile tragedia)”이라며 맛볼을 놓았다. 그러나 그 사이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비핵화의 길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

## 중단과 재개

5월 24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통으로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대면하리라 계획했던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편지에서 위협과 유감이 배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있어 슬픈 순간(un momento triste per la storia)”이라 말하면서, “전 세계 그리고 특히 북한은 항구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라고 썼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는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지속된 협상에 들인 시간, 인내,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근 성명에서 표출된 적개심을 보며 나는 현재 계획된 싱가포르 회담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는 손실이겠지만, 양측을 위하여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강력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사용할 일이 절대 생기지 않기를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작은 희망을 열어 놓았다. “우리 사이에서 훌륭한 대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을, 당신이 풀어준 인질들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는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었으며 높이 평가될 일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이르러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만일 이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공개된 후 북한은 국영방송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가 여전히 열려 있다(è ancora aperta a colloqui con gli Stati Uniti)”고 밝혔다.

그리고 5월 26일 또 하나의 극적인 장면이 일어난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위기들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또다시 만났다. 이 2차 회담은 서로를 향한 포옹과 미소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통의 지도자 남한 대통령은, “두 지도자는 판문점 선언 실행에 대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진솔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로 이끌어 가기 위해 온당하고 균형 잡힌 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언제나 능력 있는 중재자이자 용단 있는 정치가로 드러났다.

그리고 곧이어 5월 28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를 다시 이어갔다. 미 국무부는 미국 정부 대표단이 북한과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으며 언젠가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김정은도 이에 대해 저와 뜻을 같이합니다.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적으며 북한의 잠재적 경제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의 호의적 입장을 확고히 했다.

5월 30일 북한 체제의 최고위 간부 가운데 하나인, 북한 중앙노동당 부위원장이며 전직 군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이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으로 향했다. 남한의 연합신문은 김영철의 임무를 밝히며,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북한 특사임을 언급했다.

6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며 새로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 사이 평양의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를 접견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러시아로 초대하는 푸틴의 의사를 전했다. 우리는 1950년 스탈린이 미국을 도발하고 중국을 갈등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의 남침에 동의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의 긴장 완화 정세는 러시아로 하여금 경제적인 이득과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철도인, 새로운 물류망 확충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6월 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개최되리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백악관의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 김

위원장의 편지를 전해 받고 난 후, 직접 이를 발표했다. 이는 싱가포르 회담을 향한 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6월 5일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은 북한 외무상 리용호를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기에 앞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했다.

6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경제 대국 수장들이 자리하는 G7 정상회담 참석차 캐나다에 있었다. 그리고 G7 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지 않고서 싱가포르로 향했고, 일요일인 6월 10일 그곳에 도착했다. 같은 날, 김 위원장은 중국 정부에게 제공받은 전용 비행기 에어 차이나 보잉 747기로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6월 12일 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를 전, 교종 프란치스코는 삼중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정과 기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을 각별히 생각하고자 합니다. 며칠 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북미 정상 회담은 한반도와 온 누리에 평화의 미래를 보장하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sup>11)</sup>

##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많은 이들은, 어째서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남한과 미국과 연대하며 완전한 비핵화 선언이라는 외교적 어려움을 급작스럽게 감행했는지 자문한다.<sup>12)</sup>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어째서 북한은 비록 군사적인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과시하면서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려 노력하였는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sup>13)</sup>

11) 편집자 주. 여기서는 주교회의가 번역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를 인용하여 실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도 (2018년 6월 10일 주일 삼중기도에서)」,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l200&bid=13013383&page=1&key=subject&keyword=%BA%CF%B9%CC&cat=](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l200&bid=13013383&page=1&key=subject&keyword=%BA%CF%B9%CC&cat=) (접속일: 2018.8.7).

12) 미국의 군사적 정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타국 정상과 교류하지 않는 지도자였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던 것을 기억한다. M. Stevens, “Trump and Kim Jong-un, and the names they’ve called each other”, *The New York Times*, (2018.3.9).

13)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을 참조할 것. G. Sale, «Corea del Nord e crisi nucleare», in *Civ.Catt.* 2017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전 세계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 사람들처럼 이렇듯 오랜 시간 동안 핵무기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sup>14)</sup>

북한의 핵과 관련된 역사는 미국이 한국전쟁(1950~1953) 때 북한과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북한은 체제를 보호하고 국가적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무장을 원했다. 그리고 이라크와 리비아의 몰락을 보며 어떤 교훈을 분명하게 얻었다. 이 두 경우 모두, 미국은 핵무기를 포기한 체제들의 파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sup>15)</sup> 핵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TNP)에 탈퇴를 선언하며 실질적으로 공식화되었다.<sup>16)</sup>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그 자체로 “외교적(diplomatici)”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굶주림과 치료가 결여된 질병들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벗어난 오지의 상황은 심각했다.

비록 최근의 바뀐 정세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전히 더 지켜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협상 능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장의 의도는, 체제를 유지하고 고립과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한 위협적인 전략과 경제 제재 강화에 있어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김 위원장 역시 미국을 자국

IV 339-354.

14) 참조. 『노동신문』, (2012.3.22.), in <http://www.rodong.rep.kp/ko/>

15)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마치 여전히 지닐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화학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폐기하였다. 비록, UN이 이라크의 무기 시설 폐기를 확인했지만,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였고, 체포된 사담 후세인은 이라크인들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소비에트 연방의 와해 이후, 그들의 영토에서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여전히 열려 있다. 대신에, 1993년에 체결된 부다페스트의 “각서(Memorandum)”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타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안보리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장악하였고, 돈바스와 루한스크에서 갈등을 일으켰을 때, 다른 강대국들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교훈은 분명하다: 핵무기가 지닌 힘은 그 나라를 주변의 강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란과 핵 합의를 이끌었던 미국이 지난 5월 핵 협정(JCOP: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16) A. Macchi, «Il ritiro della Corea del Nord dal Trattato di non proliferazione nucleare», in *Civ. Catt.* 2003 I 337-344.

하는 위치에 잠정적으로 도달하고, 그리고 가장 강한 지점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외교적 결실과 맞바꿔 조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우선순위인가? 과거에 남한과 미국은 선 핵폐기 후 평화협정이라는 정책을 고수했다. 반면, 북한의 입장은 평화의 구축과 핵폐기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 두 입장은 수년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나아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8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북한의 핵을 폐기하여 한반도를 평화 상태로 만들고자 6자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해 평화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과 2007년 2월 13일의 합의가 6개국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처음에 중국이 제안했던 비핵화와 평화정세의 구축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전제하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미 드러났듯, 6자회담의 합의들은 북한과 미국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였다.<sup>17)</sup>

## 싱가포르 선언

누군가는 지금 상황이 6자회담 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몇몇 사항들은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매우 오랜 세월이 지나 이루어진 북한과 미국의 이 대화는, 각 정부 특사단의 만남이 아닌, 정상 간 회담이었다. 즉, 양국 최고지도자들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과정에서 신뢰를 획득하였고, 이 안에서 자신의 외교 능력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상회담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자신의 협상 능

---

17) 무엇보다 6자회담의 실패는, 동시적 이행이라는 원칙에 대한 문제가 아닌, 두 양국 간의 불신에 기인한다. 한편에선, 북한이 핵시설 시찰에 대해 충분히 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에 대해 부시 정부의 높은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리비아와 이라크가 걸었던 몰락의 길은 북한이 협상 파트너를 불신하게 하였다.

력을 과시할 특별한 기회였다. 무엇보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협상에 개인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했고 자신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란과의 교섭을 거부했기에 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다. 또 다른 의미 있는 요소는 남한이 미국과 함께 긴밀하게 교류하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헌신적으로 중재하였다는 데에 있다. 몇몇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이 남한을 따로 떼어놓고, 무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그들이 믿는 것처럼 남한은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외시된 나라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한편에서 남한과 미국 사이에서 매우 수준 높은 협력이 있었다.

현재 싱가포르 선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을 보장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의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상호 신뢰 형성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음”도 분명하게 언급되었다. 동시에 이 회담은 “두 나라 사이에서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긴장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매우 중대한 세계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의 네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서로 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2.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력에 함께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 송환을 마련하고, 전쟁 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이렇듯,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새로운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이 선언

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에 대한 제안과 상호 불가침의 조약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이라는 해법들을 함축한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실현될지 그리고 이러한 합의들이 얼마만큼 한반도의 평화와 균형의 미래를 확고히 하게 될지는 오로지 시간이 알려 줄 일들이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로드맵도 보장도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다. 그들이 제재에 굴한다면 평양이 국제 경제 체제에 들어선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선언들이 이를 가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종료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이고 값비싼 전쟁놀이(provocatori e costosi war games)”라고 갑작스럽게 규정 한 바 있는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이는 베이징에서 기대했던 “북핵 쌍중단(freeze for freeze)” 전략이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에어차이나 항공기로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는 이번 회담에 중국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sup>18)</sup>

그러나 특정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억제할 현실적 능력이 없이는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단순히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대략 13,600문으로 추정되며 남한을 향해 고정된 장사정포도 있음을 직시해야만 한다. 남한은 북한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떨어진 곳으로 포들을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몇몇 비평가들은, 명백하게 승리한 회담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승인이 없었다고 평가하며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이 두 정상은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도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였었다.<sup>19)</sup> 김 위원장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에 “많은 이들이 이

18) 또한,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한반도 주둔도 불확실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커다란 성공일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군을 중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뜨릴 수 있는 완충장치로 생각해 왔다. 중국은 미국의 우방국들과 국경이 인접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사실상 “포위(accerchiamento)”상태이다. 일본을 비롯하여 남한, 말라카 해협,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물류들은 미국항공모함의 통제하에 있다.

19) 회담 후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 Jennifer Williams, “Read the full transcript of Trump’s North Korea summit press conference”, Vox (2018.6.12). [www.vox.com/world/2018/6/12/17452624/](http://www.vox.com/world/2018/6/12/17452624/)

번 회담을 일종의 판타지 영화로 생각할 것(molti staranno pensando che il nostro incontro sia uscito da un film di fantascienza)”이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러한 감격은 두 지도자가 함께 서 있는 모습만이 아닌, 미국과 북한의 국기가 그들의 등 뒤에 나란히 자리한 모습을 보는 데에서도 일어났다.

서울대교구 교구장이자 평양 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은 화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며, 강론 중에 이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였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정상회담 한 번으로 문제가 일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올 바로 놓는 작업의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뚫고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끈뭇이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몇 달 동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화해의 바람을 표현하였다.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희망은 싹트고 있다.<sup>20)</sup>

---

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접속일: 2018.8.7).

20) 싱가포르 회담 이후의 전개는 긍정적이었다. 남한과 북한은 군사 직통전화를 다시 복구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판문점의 완전한 비무장화에 대한 주제를 협의했다. 그리고 서해 해상 분계선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대한 2004년의 남북 합의를 온전히 적용하도록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서해 해상 분계선인,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화하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여러 현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북한은 한국전쟁 중 38선 북쪽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병사의 유해 5,300구 가운데 200구 이상을 수습해 미국으로 송환했다. 유해 발굴 작업은 이미 1996년부터 시작했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었다. 이 사이에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로 만났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직접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미국과 남한은 38선 평화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로, 8월 연합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였다.



# 한국의 현재와 미래: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와의 인터뷰

PRESENTE E FUTURO DELLA COREA

Intervista a mons. Hyginus Kim Hee-Joong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옮김 (전주교구, 주교회의 홍보국장)

9월 초, 태평양을 사이에 둔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을 때,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상적인 다리가 놓였다. 한국 천주교회가 서울에서 준비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Come in cielo così in terra! Seul e i 230 anni della Chiesa Cattolica in Corea)”이란 제목의 전시회가 성 베드로 광장 전면에 새로 단장한 웅대한 브라치오 디 카를로 마뇨(Braccio di Carlo Magno) 홀에서 시작되었다.<sup>1)</sup> 전시회가 열리는 그날, 프란치스코 교종은 여러 해를 기다렸던 평화 협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로마에서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적지만, 전쟁 위협과 평화에 대한 갈구 그리고 신앙 역사의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둘의 발자취가 의미심장하게 엮여 있다.

183점의 고귀한 전시물은 어떻게 몇 세기 동안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한반도에 퍼져 왔는지 증언하고 있다. 이 전시회를 위해 한국 남서부에 위치한 광주대교구의 교구장이자 한국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가 로마에 왔다. 1947년 출생인 대주교는 로마를 잘 알고 있다.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교회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종교간 대화일치 교황청위원회와 그리스도교 일치증진을 위한 교황청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대주교는 한국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의장을 맡았었다. 남한의 공식 대표단의 일원으로 며칠간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인터뷰에서 대주교에게 그의 조국 한국과 한국이 살아온 신앙 역사에 대해서

---

1) 이 전시회는 서울대교구의 한국순교자 현양위원회의 협력으로 준비되었고, 서울대교구와 서울역사박물관이 공동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주 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관, 바티칸 박물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극동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긴장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대주교님, 한국 천주교회는 젊은 교회이고,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 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사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 역사는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특별한 역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복음화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몇몇 평신도들이 스스로 복음의 길을 찾아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은 참으로 커다란 은총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 전시회는 바로 지나간 역사의 생생한 증언이며, 동시에 전통 신앙의 유산을 현재에 투영하여 이루고자 하는 재도약의 발판입니다. 곧, 이 전시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능동적이며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한국 천주교 초기 공동체 정신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한국 교회 사목 활동은 생기가 넘치고 역동적이며, 평신도들은 사제들의 사목 활동, 자원 봉사자 활동과 평신도 단체 활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함께 일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늘어나고, 사제와 수도자 성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되고 서구 형태의 소비주의가 뚜렷한 현재 한국 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약 15년 동안 한국 천주교회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늘어나고, 사제와 수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제와 수도자 성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빛은 어둠과 공존합니다. 세례 받은 이들의 수가 늘어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형태의 소비주의 경향은 사제와 수도자 성소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고 성소 감소에 원인이

됩니다.

대주교님은 어떠한 것이 한국 천주교회가 피해야 할 위험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제 생활의 ‘관료화(burocratizzazione)’입니다. 사제들이 관리인이거나 행정가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파견하신 목자들임을 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제 생활의 본질은 원칙적으로 ‘기능인(funzione)’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선포’(사도 6,4)에 헌신하는 ‘하느님의 사람(uomo di Dio)’이라는 신원이 지닌 영적 가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만함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는 승리주의의 위험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신자들까지도 사제들과 천주교를 대단히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이러한 특권적인 조건에서 우리는 평신도들을 더욱 겸손하고 더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국 교회의 세속화를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Chiesa povera per i poveri)”가 되는 길을 찾으면서, “교회의 감각(sensus Ecclesiae)”,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의 교도권에 따라 때때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한국에는 커다란 유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유교는 어느 방식으로 천주교회의 삶과 종교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회·정치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으로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왕조(1392-1910)의 권력과 사회·정치 제도는 유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 중심인 유교의 가르침을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거부했다면, 그것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내지 사회 질서의 전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당대의 사회·정치 체제 내

에서 수용될 수 없었고, 국가와 사회 질서의 반역자들로 간주되어 박해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로 결정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까? 유교와 그리스도교 간에 긴장이 있습니까?

이 차원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유교의 많은 요소는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효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윤리 계명을 유교의 도덕적 가치로 대체하지는 않았으나, 신앙에 그 가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은 복음에 비추어 유교의 중요한 윤리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종교입니까? 초월자와의 관계가 중시되는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유교를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유교에서 왕에 대한 충성, 자녀의 효성과 조상 제례의식은 “종교적인(religioso)” 형태의 중요한 의무들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기 천주교 공동체는 조상 제례가 효성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제례의식은 미신이라고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문제가 약 1세기 동안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주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였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는 조상 제례의식을 죽은 이들을 위한 종교 신심과 기도의 표현으로 해석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천주교인들은 학술적인 용어로는 보유훈이라고도 하는 유교의 긍정적인 가치를 윤리적인 배경에서 보완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교에는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는 중국과 일본 ‘제국’과 경계를 이루면서 받게 된 평화로운 문화적 영향과 더불어 이른바 천황(天皇)의 참혹한 폭력의 영향에 대해 언급합니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냉전이 초래한 긴장을 감내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에 분단된 지정학적 영토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무엇보다 한국은 유교

와 무속, 나아가 불교와 도교처럼 서로 구별되는 아주 오래된 전통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영성과 문화들 사이의 긴장과 다원성이 어떻게 한국인들, 특히 천주교인들의 감수성을 형성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국은 이른바 ‘강대국(superpotenze)’인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냉전과 같은 긴장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도록 외세로부터 강요받았습니다. 우리 영토가 20세기 중반의 지정학적 긴장 상태에 지금까지도 머물고 있는 주요 원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 두 강대국 간의 갈등입니다. 질문의 둘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반도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 집단으로 이루어진 곳이지만, 한국인들은 단일민족을 형성했습니다. 비록 시대에 따라 세 국가 또는 다섯 국가로 정치적으로 분할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기원후 4세기부터 고유한 단일성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은 매우 오래되고 서로 다른 전통들을 간직한 나라로 유교와 무속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가 공존해 왔습니다. 한국인 종교심성의 기본 토대는 행운과 행복을 얻고 역경과 불행을 피하고자 신에게 비는 무속적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삶의 역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불교와 근래 일부 개신교 공동체들은 이러한 무속적 종교심성을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 자신의 종교를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로 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교,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종교 전통들이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는 60여개가 넘는 다양한 종교들과 종파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박물관이라고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심각한 대립 없이 우리 모두는 함께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다른 종교(le altre religioni)’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종교(le religioni dei nostri vicini)’라고 말합니다. 이웃종교들의 신앙이나 교의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도덕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한 그들의 긍정적인 의미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차이(differenza)’는 바로 ‘틀림이나 오류(sbaglio

o errore)’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색상의 차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은 다양한 색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예술작품을 창조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기들이 지닌 서로 다른 음질, 음조와 음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의 교향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서로 다른 형태, 색깔과 크기의 꽃들이 많이 있을 때에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2014년 교종 프란치스코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라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갑니다(Le persone nel viaggio della vita non camminano da sole, ma insieme).” 우리 모두, 한국 7대 종교 지도자 대표는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면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감수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톨릭 신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이웃종교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히, 윤리 부문에서 문화적인 요소와 종교적인 요소를 구별하면서 이웃종교들의 긍정적인 가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매년 사제수품을 준비하는 가톨릭 부제들은 이웃종교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7대 종교들의 중앙본부들을 방문합니다. 이는 부제들의 이웃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의 주교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이는 한국 사목방문의 근본적인 중심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계획과 한국 천주교 공동체가 도전으로 마주해야 할 승리주의와 경제적 풍요 그리고 신자와 사목자의 거리감이라는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교종 프란치스코는 해미에서 근본적인 사목 자세로서 ‘공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첫째, 승리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가 이 위험을 심각한 도전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조금 교만해졌습니다. 어떤 심각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때, 가톨릭 신자 여부를 떠나 대다수 한국인들이 한국 천주교의 소신 표명을 기다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숫자상으로 가톨릭

릭 공동체는 작은 집단이지만, 이웃종교들보다 더 큰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인들이 더욱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산입니다. 세속 재물이 그 자체로는 그저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富) 자체로는 선이나 악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한 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산 자체는 선이라거나 악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은 참으로 위험한 모험으로서, 한국 천주교회는 물질주의로부터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재산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면 쉽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은 더 많은 탐욕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길ियो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선물인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의 유일한 기준과 가치를 부가 차지하고 참된 하느님의 자리는 물신이 차지하여 이상승배자가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Chiesa povera per i poveri)”를 자주 언급하시는 이유입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찾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질적인 풍요는 한국 천주교회에 매우 위험한 도전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애와 사랑의 정신으로 더 가난한 교회들과 함께 걸으면서,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대적인 쇄신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신자와 사목자들 간의 거리감은 교종께서 경계하시는 또 다른 위험입니다.

신자와 사목자들 사이의 거리감은 한국의 실제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본당들에서 직접 사목하는 사제들과 신자들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당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제들에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 문제 외에도, 몇몇 사제들이 사목 활동의 관료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직자 피정과 신학교 양성에서, 근본적인 사목 자세인 겸손의 정신으로 신자들을 존중하고 돌보라고 자주 권고합니다.

교종의 말씀이 교회 의식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교종이 하신 모든 말씀이 확실히 한국의 가톨릭교회의 자각에 지표를 남겨 주셨습니다. 저는 종종 교종의 말씀을 신자들과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들의 생활을 쇄신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용합니다. 교종께서 한국을 방문하신 후, 한국 주교들은 다른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통장(conto del buon samaritano)’이라고 일컫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기금을 모아서 다른 나라의 가난한 교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금과 더불어 한국 주교회의는 주교들의 개인 수입의 일부를 모아서 매년 가장 가난한 교회들과 구체적으로 연대합니다.<sup>2)</sup>

한국 초기 천주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평신도들은 중국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사제도 중국인 주문모 신부였습니다. 북경 주교에 의해 파견된 그분은 서울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중국 천주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네. 모든 관계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애국교회와 더불어 지하교회와도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종종 애국교회는 자신의 대신학교 또는 수녀회의 양성, 철학과 신학 그리고 교부학 교육, 또는 피정과 영신수련 지도에 필요한 도움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정말로 대신학교 양성 자체를 위한 것인지, 단지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청과 중국 양자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공통 관심에 기초한 교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테오 리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가 지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 대륙의 정부는 서방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국가 내에서 인종과 사회단체로 인한 분열을 피하려고 합니다. 중국 종교법에 따르면, 외국인 선교사들은 대륙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은 양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주최국을 번갈아가며 해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일반 원

2) A. Spadaro,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nella Repubblica di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 in *Civ. Catt.* 2014 III 403-418.



칙으로서 중국인들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상업과 외교 등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근본 요소로 간주합니다.

중국과 바티칸시국 간의 미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성청의 미래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교류로 양국 간에 신뢰를 쌓아 가는 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교황청과 맺는 관계에 매우 주의합니다. 저는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평화에 관해 중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교종을 초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sup>3)</sup>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은 삼천년기가 아시아 교회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 주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한국 천주교회가 어떤 공헌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광주 가톨릭 대학교를 방문하시어 신학생들에게 향후 중국 대륙의 선교를 위해 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종의 아시아 미래를 위한 이 전망은 예언적인 시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66년에 제가 광주대신학교 신학생이었을 때 교수였던 미국 예수회 신부님들은 향후 중국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국어를 배우도록 권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더 잘 알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젊은이들과 문화 교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향해 교회의 창을 열고 문을 여는 첫 번째 단계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아시아

---

3) J. Guo Jiang, “Il cattolicesimo in Cina nel XXI secolo”, in *Civ. Catt.* 2017 II 417-424; A. Spadaro, “La Chiesa e il governo cinese. Intervista a p. Joseph Shih”, in *Civ. Catt.* 2017 IV 52-58, 편집자 주. 이 글은 『치빌타 카톨릭』 한국어판 제5권의 12호에 수록되었다. 안토니오 스파다로, 「교회와 중국 정부: 요셉 신부와의 인터뷰」, 여명모 옮김, 『치빌타 카톨릭』, 12(2018, 봄), 35-43.

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알리도록 부름 받은 한국 천주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헌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에 대해 말할 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칭합니다. 북한은 현 체제가 도래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잘 뿌리내리고 피어났던 곳입니다. 이북에 복음의 씨앗이 아직까지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까요?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과 더욱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활발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 정부는 한국 주교회의와 연계된 국제 카리타스의 협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도달한 합의에 따라, 평양에서 대축일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 몇몇 사제들을 조속히 파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인도적이고 종교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대주교님께서는 한국 천주교 대표단 그리고 교회일치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이런 만남이 화해의 결실을 가져왔고, 미래에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두 국가의 화해는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것처럼 한 순간에 실현될 수 없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가는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커다란 인내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종교들은 북한의 권력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의 지역 통치체제가 종교 단체에 대해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종교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세계 내에서 종교가 지닌 사회 정치적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서방 국가들의 종교와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북한이 남한의 7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로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국제연합(UN)의 북한 제재 강화 결정 후 초청이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초청이 조속히 다시 이루어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주교님을 교종 ‘특별대사(Inviato speciale)’로 임명하여 친서를 교종께 전달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종을 알현할 때였습니다. 이 특별 사명의 경과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교종 ‘특별대사(Inviato speciale)’로 파견되었을 때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있었습니다. 남한의 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종을 알현하기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자신의 입장을 프란치스코 교종께 설명 드리고 기도와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사명은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님 덕분에 잘 수행되었습니다. 세례명이 ‘티모테오’인 문재인 대통령은 교종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다시 교종 프란치스코,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님과 한국 주재 교황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긴장 앞에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정서는 그들의 보수적 또는 진보적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의 그러한 행위를 강대국들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시용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등한 위치가 보장될 때에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북한의 핵실험 포기를 그들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의 핵실험 포기가 정확하게 바로 그 대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한국과 북한 간에 여러 대화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 북한과의 긴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지금 이러한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하고 연장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생활의 주의 깊은 관찰자이자 주역이시고, 중요한 대교구의 사목자이자 주교회의 의장이신 대주교님은 ‘두 한국(due Coree)’ 간의 평화로운 화해의 길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행보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로운 화해의 길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한에서든 북한에서든 한국 백성은 같은 말, 문자,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핏줄과 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백성의 근본적인 동질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강대국들이 우리의 화해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사이에서 화해를 이루어 내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 건설의 일꾼으로 봉사하며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적 문화적 자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외부 국가의 개입을 배제한 남한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도모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최근 대주교님은 한국 7대 종교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교종을 알현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에서 여러 종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헌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배경에서 무엇이 가톨릭 신자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공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의 성격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직관적인 사고방식의 경향을 지니고 있고, 서양인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의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7대 종교 지도자들은 2년마다 약 한 주간 동안 다함께 순례를 하며 각 종교의 여러 성지들을 번갈아 가며 방문합니다. 순례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끼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순례 체험은 우리가 더 쉽게 협력하도록 만들어 주고 특별하게 민감한 문제를 참을성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inter nos)’ 깃든 평화는 우리 밖의 다른 이들과의 평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천주교를 관대하고 자애로운 종교로 봅니다. 그런 만큼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보다 천주교의 입장을 더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그리고 한반도 전체에서 평화, 정

의와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의 다양한 종파 사이의 협동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 역할을 다른 종교들이 천주교회에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 교종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 돌봄, 공감, 위로<sup>1)</sup>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NELLA REPUBBLICA DI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

안토니오 스파다로 S.J.

이창준 로사리오 S.J. 옮김

2014년 8월 14일 오전 10시 15분, 교종 프란치스코를 태운 알이탈리아 항공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였고 한국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교황은 비행 중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몽골, 중국 영공을 거치며 각국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영공을 비행한 것이다. 교종이 중국 영토 위를 비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로마에 돌아오면서 그 순간의 감동을 되새겼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안부를 전하며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축복하였다.

교종의 방문 목적은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에 참석이었다. “아시아의 젊은이여, 일어나라! 순교자의 영광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Gioventù dell’Asia, alzati! La gloria dei martiri brilla su di te)”라는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서 교종은 23개국의 참가자들을 만났다. 이들 중 60명은 중국 젊은이들이었다. 반면 북한은 누구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프란치스코 교종에게는 세 번째 사도적 순방인 동시에 역대 교종의 세 번째 한국 방문이다. 이전에는 교종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차례 방한하였는데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념하여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103위 한국 순교자들을 시성하였고, 이어서 1989년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 때 다시 방한하였다.

---

1) 교종 프란치스코의 말씀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메시지 일어나 비추어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 방문 일정

교종 프란치스코의 여정은 바쁜 일정으로 채워졌다. 요컨대 교종의 동선은 그의 해외 방문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반영한다. 첫날인 8월 14일,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교황은 청와대에 들러 대통령과 주요 공직자들을 만났다. 이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현지 주교들을 만났다.

둘째 날에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 중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이 있었다. 이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299명의 희생자와 5명의 미수습자가 발생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이었다. 교종은 유가족들이 받은 무거운 고통에 같이 슬퍼하였고 여러 방식으로 연민을 드러냈다. 교종은 자신의 흰색 수단에 그가 받은 노란 리본을 달았다. 이는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정부에 진실과 정의를 촉구하는 유가족을 지지하는 상징으로 정파적 행위가 아니라 깊은 연대의 표시였다. 교종 프란치스코는 로마로 돌아오는 기내 기자 회견에서 세월호 리본을 들어 보이면서 이 리본을 착용한 명확한 이유를 밝혔다. “그대가 인간의 고통을 마주할 때, 그대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Quando ti trovi davanti al dolore umano, devi fare quello che il tuo cuore ti porta a fare.)”<sup>2)</sup>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중 한 명의 아버지이자 예비 신자로 십자가를 지고 900km 순례를 마친 이호진 씨를 만났다. 교종은 8월 17일 교황 대사관 경당에서 직접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교종은 미사 후 삼종기도에서 이 침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였다.<sup>3)</sup>

2) 편집자 주. 교종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자녀, 형제자매를 잃은 이 사람들, 이 부모들을 생각하며, 그러한 재난의 깊은 고통을 생각하며, 뭐랄까 제 마음이 ... 저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 (접속일: 2018.8.11).

3) 편집자 주. 이날 교종 프란치스코는 삼종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특별히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들을 당신의 평화 안에 맞아 주시고,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형제자매들을 도우려고 기꺼이 나선 이들을 계속 격려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슬픔 속에 하나가 되었으니, 공

교종은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에 참석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대전에서 솔피 성지로 이동하였다. 이곳은 첫 한국인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가 태어난 곳이다. 이 만남은 아시아 23개국에서 온 6,000명의 젊은이들이 성지 근처에 자리한 대형 흰 천막 아래 모여 어우러진 다채로운 행사였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입은 티셔츠에 새겨진 문구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Papa Speranza*(희망의 교황님)”, “*Svegliati*(일어나라)”, “*Alzati e risplendi*(일어나 비추어라)” 등 행사의 주제를 담은 것이었다.

셋째 날 교종 프란치스코는 조선의 초기 천주교인들이 사형당했던 서소문 순교성지를 둘러 기도하였다. 이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여 윤지충 바오로와 123명의 동료 순교자들을 시복하였다. 이들은 한국 천주교회 첫 세대로 한 명의 사제를 제외한 모두가 평신도였다. 유일한 중국인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 최초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였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시복식에 참석하였다. 약 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광장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간에 운집하였다. 이 공간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모두가 작은 방석에 앉아 고개 숙여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매미 울음소리만 들렸다.

이날 오후에 교종은 꽃동네를 찾았다. 이곳은 희망의 집이라는 장애인 재활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웅진 요한 신부가 1970년대에 설립하였다. 장애가 있는 고아들 틈에서 교종은 온전한 편안함을 느꼈다. 교종이 큰 고통을 겪어온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만나는 모습에 수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몇몇은 교종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였다. 지역 언론은 교종이 보인 자세에 주목하였고 특히 한 아이가 교종의 손가락을 입에 넣은 장면에 집중하였다. 이들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프란치스코는 “낙태된 아기들의 정원(Giardino dei bambini abortiti)”이라 불리는 작고 하얀 십자가들이 가득한 잔디밭에서 잠시 기도하며 머물렀다. 교종은 또한 꽃동네에서 한국 수도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났다.

나흘째에는 조선의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산 채로 매장당하기도 하였던 해미

---

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메시지 일어나 비추어라』,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 33.



“무명 순교자 성지(Santuario del martire ignoto)”를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교종은 아시아 주교들을 만났다. 오후에 교종은 해미 읍성으로 이동하여 제6회 아시아 청년 대회 폐막 미사를 집전하였다. 미사 직전에 마련된 제대가 눈길을 끌었는데, 실제 각국을 대표하는 23명의 젊은이들이 가져온 나무 십자가들을 조립하여 제단을 구성하였다. 저녁에 교종은 계획되지 않은 개인적 일정을 결정하였다.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은 예수회 공동체에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예수회원들은 이 소식을 불과 24시간 전에 전해 받았다.

닷새째이자 마지막 날인 8월 18일, 교종 프란치스코는 서울에 있는 명동 대성당에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과 짧게 만났다. 공간은 협소하였고 간단히 인사를 나눴지만, 교회 공동체 지도자와 다른 종교 지도자 모두에게 정감 있는 인사였다. 그리고 교종은 한국의 모든 주교들과 함께 이번 방문의 마지막 미사를 집전하며, 한국의 평화와 화해를 기원하였다.

미사 전에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었다.<sup>4)</sup> 그들은 젊은 시절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몸을 빼앗겨야 했던 이들이다. 한국의 언론은 교종의 이 만남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미사 후 교종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있는 곳에 들렀다. 이어 성남 서울공항에서 로마로 다시 떠났다.

## 한국, 아시아의 관문: 최전선이자 관문

교종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청년 대회 후에 한국 대전교구의 유흥식 라자로 주교에게서 처음 초대를 받았다. 이때 교종에게는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왔다. 교종이 이 초대에 응답한 것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동기가 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결단이자 식별의 결과였다. 왜 하필 한국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종 프란치스코 자신이 특별

---

4) 편집자 주. 교종은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열린 기내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일제 침략 때문에 어린 소녀로 군대에 끌려가 착취당했던 일을 생각해 봅니다 ... 그러나 그분들은 존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할머니 분들이 거기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분들입니다 ... 한국인은 자신의 존엄을 확신하는 민족입니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 (접속일: 2018.8.11).

히 최전선을 선호한다는 점과 교종의 세 번째 국제적 방문으로 한국을 결정한 것을 연결 지을 필요가 있다.

제28회 세계 청년 대회는 교황 선출 이전에 이미 예정된 방문이었으며, 예루살렘을 방문(2014년 3월 24-26일)하고 나서 교종은 알바니아, 필리핀, 스리랑카에 방문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 여정은 말할 것도 없이 이탈리아의 람페두사를 방문한 일이다. 람페두사는 지중해에 위치한 작은 섬이지만 “유럽의 관문(Porta d’ Europa)”이란 특성이 있다. 이는 2008년에 조각가 도메니코 팔라디노(Domenico Paladino)의 전시회가 열렸을 때 확인된 특성이다.<sup>5)</sup> 람페두사는 지리적으로 개방적인 곳이며 문화적 교류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난민들이 다다른 곳으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난민들의 삶의 극적 긴장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변방인 동시에 관문, 최전선, 국경, 입구이다.

매우 유사하게도, 교종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탈리아의 람페두사처럼 대조적인 특성들을 제시하였다.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을 만날 때를 돌이켜 보면, 그는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폭력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한국은 아름다움과 폭력의 양립이라는 긴장의 최전선에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관문인 람페두사와 같이 한국에서도 아름다움과 비극이라는 모든 차이점을 상기시킨다. 프란치스코는 전임 교종 베네딕토 16세가 여행하지 못했던 대륙인 아시아의 관문인 한국을 방문한 것이다.

또한, 교종의 한국 여정의 시작은 아시아 젊은이들의 여섯 번째 만남에서 비롯하였으며 그는 이곳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온 주교들을 보았다. 오늘날 이 지역은 그리스도교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최전선들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교회의 현실과 부르심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큰 숫자는 아니지만 괄목한 만한 성장을 보여 주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지역 교회 공동체이다.

5) 편집자 주. 도메니코 팔라디노(Domenico Paladino, 1948-)는 이탈리아의 예술가로 mimmo 팔라디노(Mimmo Paladino)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학계에는 이탈리아 트랜스 아방가르드 운동의 주요 작가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역사와 신화 그리고 전설 등을 모티프로 하여 삶과 죽음의 주제를 회화, 조각, 판화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는 “람페두사의 문, 유럽의 관문(Porta di Lampedusa—Porta d’Europa)”이라는 조형물을 통해서 바다에서 사망한 난민들을 추모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원형의 구체가 아니라 다면체를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구체에서 표면의 모든 점은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고 다면체에서는 모든 면이 제 모습을 지닌다. 그리고 “거의 세상 끝에서(quasi della fine del mondo)”라는 표현이 교황에게 다가왔고, 아시아는 다면체의 면으로서 마테오 리치가 같은 방법으로 정확히 “세상의 끝(fine del mondo)”이라고 정의하였다. 교황의 이 시각에서 주변부와 최전선은 단지 세계를 더 잘 이해하려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에게 복음을 나누기에 보다 적합한 강론대이다.

한국의 역사는 동시에 두 가지 영향을 받은 최전선으로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나는 문화적으로 평화로운 영향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롯한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향이다. 한국에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냉전에서 오는 긴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세기 후반에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한 영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한국은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유교적 전통을 지닌 지역이다.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유교나 샤머니즘과 같은 데서 비롯하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감성 역시도 마찬가지이다.<sup>6)</sup> 불교와 도교도 그렇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에 관하여 더욱 눈여겨볼 만한 소설 중 하나의 이탈리아판 제목이 흥미롭다. 한말숙 작가의 『최전선의 찬가(Cantico di Frontiera)』가 그것이다.<sup>7)</sup> 교종도 솔피에서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일치를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더 풍요롭게 하는 일치를 이루도록 하라”고 주문하였다. 한국은 수많은 대립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어 일치에 도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풍부한 그리스도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였고 외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학자인 한국인 평신도들로부터 은총을 키웠다는 점을 발견한다. 17세기 초반부터 북경에 파견된 조선인 사절들은 예수회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과 종교적 주제를 토론하였다. 그들로부터 한국인은

6) Cfr S. Hae-Kyung Kim, *Sciamanesimo e Chiesa in Corea: per un processo di evangelizzazione inculturata*, Roma,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2005.

7) Mahlsook Han, *Cantico di frontiera*, Milano, O Barrao O, 2001. 편집자 주. 우리말로로는 한말숙, 『아름다운 영가』, (서울: 인문당, 1993)으로 출판되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선포한 이들이 작성한 글들을 받았다. 특히, 예수회원인 마테오 리치가 작성한 『천주실의』(1603)는 유교가 진리에 이르는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였다.

1784년에 이르러 학자들 중의 한 명이 베이징에서 천주교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귀국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1836년 첫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까지 공동체는 평신도의 신앙과 증거로 지탱하였다. 교종이 한국 주교들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교회는 본래 “성직주의의 유혹(*la tentazione del clericalismo*)”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 나아가는 평신도들이 있었다 (*andavano avanti da soli*).”

이렇듯이 그리스도교가 “지적 호기심에 자극(*fu stimolata dalla curiosità intellettuale*)”을 받아 한국에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광화문에서 열린 첫 순교자들의 시복 미사 중 프란치스코 교종이 언급한 것처럼 지혜를 향한 인간의 탐구가 이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인간적 지혜와 추상적 신앙의 충돌과 같은 경계와 도전 역시 분별할 수 있다. 이 지혜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촉발한다.

이는 마테오 리치가 시도한 길이며, 그의 유산은 한 세기 반이 흐르고 중국에서 다른 지역까지 멀리 전해졌다.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은 리치의 길이 열매 맺었음을 확인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 맥락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관문이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이곳에서 아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풍요로운 철학적 종교적 전통을 지닌 아시아 대륙은 여러분이 ‘길ियो 진리요 생명’(요한 14,6)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여야 할 거대한 최전선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계층과 위계 안에 사회를 이룬 유교 사상으로 교육받은 첫 한국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증언하고자 모두가 형제로 지낸 점은 인상적이다. 세례받은 모든 이가 똑같이 존엄하다는 신념은 “당시 그들이 살던 시대의 엄격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면서도 그들을 형제적 삶을 형성하도록 이끌었다.” 이는 시복 미사 중 교종의 강론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명적 가치의 메시지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 안에서 또한 박해와 순교의 원인 중 하나였다.

교종은 마치 사회적 긴장에 놓여 있는 듯한 한국 땅에서 순교자들이 보인 형제

적 연대의 증거가 빛을 비춘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사회 제반의 문제, 정치적 분열, 경제 불평등 및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당면한 필요를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 영적 성장을 하도록 북돋워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문화적, 영적, 사회적 긴장과 같이 모든 최전선에서 오는 긴장은 프란치스코에게 한국을 방문하라는 확신을 주었다. 교종은 그의 공감하는 태도로 이 갈등들을 어루만지며 인정 있는 이웃이 되어 주었다. 특별히 한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주목하였다.

### 영적 풍요로움 그리고 승리주의, 번영,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유혹

한국과 아시아의 주교들에게 교종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영감을 주는 담화를 나누었다. 이 담화에서는 한국 방문에 있어 본질적인 열쇳말을 담았으며, 교회의 밑그림과 한국 교회 공동체가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세 가지 위험을 다루었다. 이 내용을 짧게 요약하고자 한다.

**승리주의(Trionfalismo).** 교종은 한국의 주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의 임무가 “기억의 지킴이(custodi della memoria)”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프란치스코는 한국인이 가진 문화적이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인지하였다. 이 지혜를 간직하고 지키는 것은 고대의 유물로 여기거나 과거의 가치로 박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식견과 결단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 약속,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영적 자원”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이다. 한국 교회의 풍부한 역사는 도전에 있어 회심과 진전으로 나아갈 장을 열 것이다. 이 기억이 승리주의에 도취되는 태도로 여겨지는 상황에는 주의해야 한다!

평신도의 뿌리에서부터 자란 한국 교회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오늘날 가톨릭 신자는 5백만 명이 넘으며 전체 인구에서 11%에 달한다. 사제는 약 5,000명 정도이며 1,500명의 남자 수도자, 10,000명 정도의 여성 수도자가 있다. 이 교회는 또한 상당한 선교적 자극을 받아, 선교사 또는 신앙의 선물(*fidei donum*)로 약 1,000명의

사제가 해외에 있다.<sup>8)</sup>

이는 미래에 긍정적이고 고무적일 테지만 사목적 “성공(successo)”에 도취하는 유혹이나 영적 마케팅을 촉진하는 위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교종은 한국 교회가 사회의 경쟁적이고 기능적인 모델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교종은 주교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예언자적인 복음의 증거는 한국 교회에 특별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번영되었으나 또한 매우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목자들은, 기업 사회에서 비롯된 능률적인 운영, 기획, 조직의 모델들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성공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기준을 따르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까지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준보다 우선하여 취하려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번영(Benessere).** 한국 주교들은 또한 “희망의 지킴이(custodi della speranza)”로 부름을 받았다. 교종은 희망의 덕목을, 즉, 미래에 그리고 현대에 온전히 몰두하려는 교회가 처한 모든 긴장을 다루었다. 이 긴장은 사회의 주변으로 내몰려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 난민들, 이주민들과 교회가 결속하여 예언자적 증거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나타난다. 교종은 주교들과의 담화 중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긴 설명을 이에 덧붙였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는 “복음의 중심(il centro del Vangelo)”이라 하였다. 그러나 번성하려는 그 순간에 유혹이 떠오른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스스로 사회화(si socializzi)’하여 신비적 측면을 잃는 것이다. 신비를 거행하는 임무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교의 가치는 지녔으나 예언자적 누룩이 없는 그리스도교적인 조직으로 탈색된다.” 교회가 변화할 때 거정되는 모습은 “중산층의 공동체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수치심을 일깨우는 것”일 수 있다. 이를 두고서 교종은 “영적 번영과 사목적 번영의 유혹(la tentazione del benessere spirituale, del benessere pastorale)”이라고 정의 내렸다.

프란치스코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는 믿음 안에서 제 형제

8) «Enjeux actuels du catholicisme coréen» del sociologo Park Moon-Su, tradotto dalla redazione di *Eglises d'Asie*: <http://eglisie.mepasie.org/asia-du-nord-est/coree-du-sud/2014-07-18-pour-approfondir-enjeux-actuels-du-catholicisme-coreen>.(접속일: 2018.8.11).

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할 형제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는 번영하는 교회이고, 선교하는 훌륭한 교회이고, 커다란 교회가 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가라지를 심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바로 교회의 예언자적 구조에서 가난한 이들을 제거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자들을 위한 부유한 교회, 하나의 웰빙 교회 ...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번영의 신학’에 이르렀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저 그런 안일한 교회는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리(Distanza).** 세 번째 유혹은 거리에 관한 것이며, 사목자들과 신자들 사이는 물론 교회 안에 주교와 사제들 사이에서도 가까운 거리를 잃는 것이다. 교종은 이를 주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여러분의 사제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당부합니다. 사제들 곁에 가까이 머무르십시오. 사제들이 주교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형제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주교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 사제들은 사목 생활의 많은 순간에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주교가 사제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사제들을 멀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종은 지금 여기서 강하게 위계 지어진 사회 모델이 교회 정신(mens)으로 들어올 위험을 지적한다. 이 위험은 사용자 조직을 실행하는 것처럼, 잘 지켜져야 할 규칙이나 관계 안에 세부적으로 따라야 하는 관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종 프란치스코의 담화를 다시 주의 깊게 읽어 볼 때에, 겸손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상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이는 교종의 재임 초기부터 교종이 그의 “예언자적 구조(structura profetica)”를 이야기하며 제안한 내용이다.

### “우정”의 정치와 외교

교종 프란치스코의 한국 사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외교적이나 정치적 접근으로부터 사목적 접근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은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이라는 지역은 위도 38도선 국경을 따라 73년간 드러난 상처로 특징지어진다. 남한과 북한은 평화를 이루지 않았다. 단순한 휴전 중이며 이는 이론적으로 어느

순간에든지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비무장 지대로부터 남과 북을 가르는 철조망을 보는 것은 눈에 선한 고통스러운 한국의 비극을 떠올린다.

하지만 교종 프란치스코는 “남한”이나 “북한”이란 말은 전혀 하지 않았고 한국(Corea) 또는 한반도(penisola coreana)라 일컬었다. 솔피에서의 젊은이들과의 만남 중에 교종은 한 청년의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두 한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한국이 있으나 갈라져 있습니다. 가족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고통이 있고 … 이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프란치스코는 조언과 희망을 주었다. 그 조언은 “주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 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승자도 패자도 없이, 오직 한 가족만이 있고 오직 형제들만이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이다. 희망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은 하나이고, 하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가족의 언어를 씁니다. 여러분은 같은 언어를 말하는 형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사러 이집트에 갔을 때—그들은 굶주렸고, 돈은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양식을 사러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은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들과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가족 간에 같은 언어를 쓸 때에는 인간적으로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두 가지 외재적 관점에서 이 대답은 조심스럽게 검토된다. 첫 번째는 교종이 승자와 패자, 희생자와 가해자의 논리를 무너뜨려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구성한 점이다.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땅에서 통일에 관한 그의 예언자적 발언은 모국어에 기초를 둔다.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기에 한국인은 단 하나의 가족을 이룬다.

이 관점은 프란치스코가 예루살렘에서 행동에 옮긴 방식과 같다. 예루살렘 방문 중 그의 담화는 기하학과 논리학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어 희생자를 가해자로부터 구별하였다. 이를 통해 눈에 보이게끔 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긴장을 치우고자 하였다. 그리고 통곡의 벽 앞에서 오랜 시간을 넘어서 세 번이, 즉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인 오마르 아부드(Omar Abboud), 아브라함 스키펌카



(Abraham Skorka)가 포용한 것과 같은 상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sup>9)</sup>

결국 교종은 마테오 리치의 길, 즉 그가 우정에 관하여 중국어로 남긴 『교우론(Sull'amicizia)』(1596)의 방식을 택했다. 이 책은 예수회원에게 유럽의 국가 간 교류를 활발히 하게 한 셴겐(Shengen) 조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영감을 받은 이론(saggio ispirato)”인 셈이다. 여기서 가시 돌힌 경계선 앞에 선 프란치스코의 태도의 핵심을 보여준다. 그는 철조망을 어루만졌으나 “혈뜯지(pettinari)” 않았다. 우정은 외교 전략의 의미를 넘어 가치를 지니며 어떤 때에는 위선을 베일로 덮어 감추기도 한다. 교황은 해미에서 아시아의 주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대화는 한갓 협상의 형태나 서로 서로 표면적인 합의로 전략하게 됩니다.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표면적인 합의 ... 이러한 피상성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sup>10)</sup>

그렇기 때문에 우정의 길은 결정적이며 우선적이다. 프란치스코는 우정의 길을 선택하면서, 간단하지만 위선을 지닐 수 있는 위험성에서 벗어난 예언자적 태도를 선호한다. 이처럼, 교종은 모국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제시하고 나서, 때로는 부정되거나 날조될 수 있는 공동체의 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곳 한국에서도 귀중한 응원을 기도로 나누었다. 서울을 떠나기 전 8월 18일 아침 미사를 집전하며 평화 그 자체와 한 가정을 이루는 “이 한민족의 화해(la riconciliazione in questa famiglia coreana)”를 지향하였다. 교종은 강론 중 언급한 것처럼 “온 민족이 함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 오는 간청을 하늘로 올려 드리는(un intero popolo innalza la sua accorata preghiera al cielo)”이란 표현으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다. 그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불가능하고 비실용

---

9) 편집자 주. “2014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교종 프란치스코는 그의 오랜 친구인 유대교 랍비 아브라함 스크르카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슬람 공동체를 대표하는 오마르 아브드와 함께 요르단과 웨스트뱅크 및 이스라엘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안신, 김신, 「교황 프란치스코와 중동의 평화: 차이의 종교학에서 본 종교와 정치의 관계」,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2호(2014), 77.

10) 편집자 주.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4년 8월 17일에 해미 순교기념전시관에서 열린 아시아 주교들과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상성을 말하며 이는 사목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예수회의 30대 총장 아돌포 니콜라스(Adolfo Nicolás) 신부는 그의 임기 동안(2008-2016)에 적당주의나 피상성인 태도에서 벗어나 영적 깊이를 추구하도록 초대했다. 보편성과 깊이는 그의 예수회 리더십에 핵심적인 키워드였다.

적이며 심지어 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는 당신 십자가의 무한한 능력을 통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분열의 간격을 메우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형제적 사랑을 이루는 본래적 유대를 재건하는,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한국 방문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을 믿으십시오!”

교종이 제의를 입기 위해 제의실에 들어섰을 때 선물 하나를 발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 선물은 한반도의 남북을 갈라놓은 철조망을 떠올리는 가시관이었다. 꽤 설득력 있는 이 선물은 한국에 있지 않고 교종이 직접 챙겨왔다. 그리고 이 주제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다시 상기시켰다.<sup>11)</sup>

### 복음화의 길: “공감”

다른 주요한 아시아에 관한 담화는 8월 17일 아침 해미 성지에서, 한국의 주교들과의 담화 이후에 아시아 주교들을 향한 담화로 이어졌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은 담화였다. 교종은 “모든 이들을 향한 대화와 개방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다채롭고 창의적인(versatile e creativa nella sua testimonianza del Vangelo, mediante il dialogo e l’apertura verso tutti)” 교회의 전망을 제시한다. “열린 문(porte aperte)”에서부터 교회가 지닌 “밖으로 나가는(in uscita)” 교회상을 여기서 확인하고 심화한다.

먼저, 프란치스코는 대화를 위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교종이 제시한 “정체성”이란 개념은 고정되거나 박제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하느님만을 경배하

11) “한국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가져 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나라의 분단이 빛의 고통입니다. 오늘 제가 명동 주교좌성당의 제의실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한국을 둘로 갈라놓은 휴전선의 철조망으로 만든 그리스도의 가시관입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 그것은 분단의 고통, 헤어진 가족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 남북한은 한 형제입니다. 서로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머니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분단의 고통은 매우 큼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단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 (접속일: 2018.8.11).

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려는 조용한 노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또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 보여 주려는 조용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2티모 1,12)

교종이 말하는 정체성은 항목이 완성된 목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춘 역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는지까지 밝힌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을 의식하지 않고 “공감하고 진지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없다면”, 대화는 불가능한 채로 남는다.

여기서 핵심은 “공감(empatia)”이다. 프란치스코에게 정확히 무엇이 공감인가? 그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그러한 관심으로 인도하신다 (È una attenzione, e nell’attenzione ci guida lo Spirito Santo)”고 상술한다. 따라서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교황은 도전 속에서 공감을 잘 이루는 길에 대하여 “(공감은)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로 하지는 않지만 전달되는 그들의 경험, 그들의 희망, 그들의 열망, 그들의 고난과 격정도 듣는 것입니다”라고 상술한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잘 정리된 단어들과 담화를 넘어서는 영적 태도를 바란다. 흔히 영적 감수성은 “단어들과 행동을 가로지르고 넘어서 형제자매와 같은 다른 이들을 보고 ‘들어(ascoltare)’, 그들의 가슴이 소통하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은 자기 자신, 염려, 개인적 생각으로부터 떨어져 다른 이에게 관심 그 자체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에 경청을 가치 매기기보다는 다른 이의 깊은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

교종은 대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 오히려 의미와 방법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란치스코는 한 걸음 더 가아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열려 있고 환대하는 관상적인 영혼(spirito contemplativo di apertura e di accoglienza dell’altro)”이 확인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개방(apertura)”으로 충분하지 않고 환대를 필요로 한다. “내 집에,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내 마음으로 상대를 맞아들이며,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은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진정한

대화에서는 형제애와 인간애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이나 생각, 그리고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화를 살아가는 것에 관하여 깊은 성찰을 드러낸다. 복음화는 집과 함께 그리고 그 집에서 환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교종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디에서 기초를 찾을 수 있는가? 그는 일반적인 인간성을 인지하는 데 우선적인 기초를 둔다. 그러므로 대화는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 때로는 사람다운 것이다. 이러한 점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지닌다. 여기서 모든 한국인을 하나로 묶는 같은 모국어에 대한 성찰의 토대도 발견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종과 다른 두 벗인 아부드와 스키프카가 서로를 포용한 근본적인 의미 또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프란치스코는 더 넓은 배경을 향해 대화의 전망을 적용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다른 이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저는 아직 성좌와 완전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몇몇 국가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주저 없이 대화를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정치적인 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져오지만, 그들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때로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세례를 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기자들의 대다수는 특별히 중국을 향해 손을 내미는 듯한 이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다.<sup>12)</sup>

아시아 주교들과의 담화에서 교종은 언제나 나누려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공감의 신학적 토대 또한 제공한다. “우리가 이에 대한 신학적 기

12) 2014년 8월 18일 월요일에 교종은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열린 기내 기자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중국에 가고 싶으냐고요? 물론입니다. 내일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을 존중합니다. 교회는 다만 선교의 자유를 바랄 뿐입니다. 교회 활동을 위한 자유를 바랄 뿐 다른 조건을 없습니다.” [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http://www.cbck.or.kr/bbs/bbs_read.asp?board_id=k1111&bid=13010777) (접속일: 2018.8.11).

초에 다다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근원적인 형제 관계 안에서 대화의 뿌리를 창의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대화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개방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하느님께도 개방한다”<sup>13)</sup>고 반복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이 공감하는 자세는 대화에 기능적으로 임하는 선교와 대립하기에 끝을 맺게 되지 않을까? 프란치스코는 이를 거부하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문답식으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황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조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계명이 무엇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나의 정체성과 나의 공감, 열린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는 그를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개종 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교종 베네딕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개종 권유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으로 성장합니다.’”

교종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구적 자세와 결합한 모든 유혹을 떨쳐 낸다. 대신에 거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광활하게 펼쳐진 땅, 유구한 문화와 전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자각한다. 아시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정말 작은 양 떼 (pusillus grex), 작은 무리이지만, 땅 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여전히 선교사 명이 주어진” 것도 한 특징이다.

서울 명동 대성당 미사 전 교황과 한국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단한 만남에서, 아시아 주교들에게 남긴 이야기를 되새겼다. 교종은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와 짧지만 강렬한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다른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 다른 종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삶이라는 것은 길입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종교지도자 분들께 진심

13) Giovanni Paolo II, s., «Incontro con esponenti delle religioni non cristiane» (Madras, 5 febbraio 1986), in Insegnamenti di Giovanni Paolo II, IX/1, 323.

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향했던 길이기도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도록 하십시오.”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는 교종 바오로 6세가 1964년 뭌바이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바오로 6세는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찾기 위해 여행하는 순례자입니다 (tutti siamo pellegrini in viaggio per trovare Dio nel cuore umano)”라고 이야기하였다.

### 위로하는 영혼

솔피에서 아시아 젊은이들과의 만남 후에 교종은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하지만 교황 대사관에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에 서울 서강대학교 예수회 공동체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아주 친숙하고 단순하며 자발적인 분위기에서 사적인 만남의 형식을 취했다. 교종은 이 분위기를 매우 즐겼으며, 단순하고 힘 있는 담화를 나누었다. 이 담화는 공식 담화문에 보고되지 않았다. 그의 이야기는 정확히 한국 방문 중반에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그의 말과 행동을 움직인 영혼 깊은 곳에 관한 의미 있는 빛을 엿볼 수 있다.

한국 관구의 예수회원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한 단어를 전하였다. “위로 (consolazione)란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적 위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부 이냐시오 성인이 늘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선택에서 두 번째 방법, 즉 위로를 통해서 삶의 개선이나 신분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sup>14)</sup>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는 그것을 받는 이에게는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를 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를 읽을 때, 하느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모습에서 당신 백성을 위로

14) 편집자 주.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는 그의 영신수련 184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건설하고 올바른 선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네 가지 규칙과 하나의 주로 되어 있다. 규칙 1.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선택하게끔 하는 사랑은 위에서, 즉 하느님의 사랑에서 내려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선택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선택한 대상에 대해 갖는 사랑이 오직 창조주 주님 때문이라고 먼저 스스로 느껴야 한다.”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2016).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군가 지극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위로할 줄 안다면 이 사람에게게는 위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il consuelo)입니다.”

복음의 직무를 근본적으로 완수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계속 담화를 이어 갔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교회가 마치 야전 병원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우리에게 위로를 요청합니다. 많은 상처, 위로가 필요한 많은 상처 ...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Consolate, consolate il mio popolo!).’ 하느님 사랑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교종의 한국 방문 중반에 그리고 이곳 교회에 담화를 전하면서, 야전 병원과 같은 교회상을 반복할 필요를 느꼈다. 야전 병원이란 용어는 『치빌타 카톨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제시한 단어이다.<sup>15)</sup>

솔뫼에서 젊은이들이 만든 연극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담화를 계속하였다. “오늘 오후 한 청년 모임이 루카복음 15장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표현했습니다. 이는 우리 상처 앞에 하느님이 지니신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위로하시고(consola), 언제나 희망하시고(spera), 언제나 잊으시고(dimentica), 언제나 용서하십니다(perdona). 교회 안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종종 우리 자신들이, 즉 가톨릭 신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더 이상 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느님의 백성을 위로하십시오! 주로 우리의 사제중심적인 태도가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성직주의의 원인이 됩니다. 사제라는 존재는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사목자로서 성직자 신분이기에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성직자 신분(chierici di stato)이 되지 말고 사목자(pastori)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고해를 들을 때, 하느님은 용서에 결

---

15) 이 인터뷰는 다음과 같이 출판되었다. Papa Francesco, *La mia porta è sempre aperta. Una conversazione con Antonio Spadaro*, Milano, Rizzoli, 2013. 편집자 주. 우리말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교황 프란치스코, 『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파다로와의 대담집』, 국춘심 옮김, (서울: 솔출판사, 2014).

코 지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비로워지십시오!(Siate misericordiosi!)”<sup>16)</sup>

이 간략하지만 위로에 대하여 매우 많은 것을 요청하는 담화에서, 프란치스코가 한국 교회에 남긴 말들 중 예리한 핵심을 보인다. 이는 마치 직물을 이루는 실이 연결된 모습을 보여 주는 용단의 뒷면과도 같다. 남북한이 함께 사용하는 모국어 (la lingua madre), 가정 안에서의 환대(l'accoglienza in casa), 공감하는 가까움(la vicinanza empatica) 등 교종이 남긴 묘사는 여성적이며 모성적인 특징을 지닌다. 이는 위로의 성무를 향한 교회의 근본적인 부름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 이것이 아시아 대륙을 첫 방문하여 한국이란 관문을 지나면서 교종이 강조한 말들의 밑바탕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이다.

---

16) 여기 수록된 글은 한국 관구의 예수회원들과의 만남 중에 녹음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그 내용을 전부 전한다.



## 촛불혁명 이후 한국

LA COREA DEL SUD DOPO LA «RIVOLUZIONE DELLE CANDELE»

오세일 대건 안드레아 S.J.

박경웅 베드로 S.J. 옮김.

황정연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S.J. 감수.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다른 많은 민족들처럼 한국인들도 비극적인 전쟁에 이은 국가의 분단, 그리고 독재자와 부패한 지도자로 점철된 현대사의 질곡을 거치며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다. 한편, 한국인들은 지난 세월 동안 정부의 부패를 종식시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시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마침내 희망과 비폭력의 상징인 촛불을 높이 밝혀 들었다. 한국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2016년 10월 29일부터 시작한 촛불혁명은 마무리되었다. 6개월 동안 토요일 저녁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혔는데, 한때는 참석자가 이백만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사회 정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2017년 5월에 새로 들어선 정부는 고질적인 사회 병폐를 개선해야 할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구속뿐만 아니라<sup>1)</sup> 남북 상황에서 비롯되는 지정학적이고 외교적 난제를 해결하는 일이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 분단 상황이 초래한 긴장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없을 것이다.(시편 85,11 참조) 한국 천주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땅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춤하는 그날을 향해 노력해 왔다.

한국 현대사의 두 얼굴: 발전과 적폐

---

1) 지난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1950-1953)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한강의 기적(il miracolo sul fiume Han)”이라 회자되는 과정을 거치며 경제화와 산업화를 급속하게 이룩하였고, 1987년 국민투표로 정치적 민주화를 일부분 확보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주최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며 국가 위상을 높여 왔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할 만큼 세계적으로 ‘발전(sviluppato)’한 국가의 대열에 진입한 사실을 자부해 왔지만, 극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OECD 국가들 가운데 높은 자살률로 대변되는 ‘삶의 질(qualità della vita)’의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주목받아 왔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외면적 발전과 내재적 문제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시민 사회의 분열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인권과 사회정의 및 평화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반면,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보수 진영은 반공을 내세우며 철저한 친미 노선을 추구해 왔다.

한국 사회의 두 얼굴은 어떻게 만들어져 왔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역사적 차원에서 단계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제 강점기(1910-1945)에 대한 민족의 상처와 잘못에 대한 역사적 성찰과 청산이라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일본제국에 부역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박해한 “친일매국분자(traditori pro-giapponesi)”들을 심판하려 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자기 정권의 지지 기반이었던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반공주의자(anticomunisti)”라는 명분으로 석방하고 1949년 6월 6일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냉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친일 세력은 “반공주의(anticomunismo)”를 방패로 삼아 남한 사회에서 엘리트층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국, 남북분단 체제를 이용하려는 주류 정치인들에 의해 대한민국 초창기부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이 위협받고 있었다.

둘째, 군사독재 정권(1961-1992)은 전체주의 이념을 앞세우며 국가가 주도하는 재벌 위주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소외된 계층(농민, 노동자, 빈민 등)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였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반공주의를 앞세우며 종북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억압되었다. “선성장 후분배(la

crescita prima della distribuzione)” 또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la nazione sopravvive soltanto quando sopravvivono le aziende)”와 같은 구호로 표현되는 자유시장 경제의 에토스를 강화해 온 정부는 비판적 목소리를 탄압하였다. 게다가, 1998년 한국 경제가 IMF의 감독을 받게 되면서 IMF가 옹호하는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체제가 한국의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주도한 민주당 정권의 시기(1998-2008) 동안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경제 안정과 성장(la continuità della stabilità economica e dello sviluppo)”을 지속해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두 대통령 모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남북 간의 협력을 논의하여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신봉하는 보수 정권(2008-2017)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와해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동안(2008-2013)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및 “4대강 살리기 사업(Progetto governativo di ricostruzione dei quattro fiumi)”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기업가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었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과 국토환경에 엄청난 해를 끼치며 공동선의 가치를 무너뜨렸다. 최근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정경유착과 폐쇄적 국정 비리가 더욱 심화되었다. 공적 책무성과 사회정의가 결핍된 채 사익을 추구해 온 이들 정권은 인권을 억압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다.

### 촛불혁명과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은 1961년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 대통령(1963-1979)의 만딸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2013년 2월 25일 취임하였다. 이후, 한국의 국정 운영에 무질서와 분열이 지속되어 왔다. 집권 초기 박근혜는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누렸는데 이는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런데 소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Park & Choi Gate)”가 폭로되면서,<sup>2)</sup> 박근혜가 무지하며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시민들의 연대와 6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진행된 촛불집회의 염원에 힘입어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이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삼성 비리에 대한 특검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적 책무성의 방기에 있다. 공적 책무성이란 공공 영역에서 특정한 문제 혹은 이슈가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다해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정권은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한 304명의 시민이 익사한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으나 이를 국가 기밀로 밀봉해 둔 상태다. 한편, 교종 프란치스코는 2014년 8월 방한 중에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Con i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sup>3)</sup>고 말하며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2017년 촛불집회는 독재 시절 비폭력 투쟁을 강조하며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히던 시국기도회가 일반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평화롭게 태워 올리는 평화적인 시위 문화로 발전된 것이다. 그런데 정치적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은 사건 하나가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10개월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고 있던 가톨릭 농민회의 지도자 백남기 임마누엘의 시신을 경찰이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죽음 앞에서 병원 측은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라고 기재하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부검을 집행하려고 경찰력을 동원한 정부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

2) 최순실의 태블릿 PC에 관한 JTBC의 특종 보도는 전 국민에게 박근혜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명백히 설명하는 단서가 되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에는 박근혜의 공적 연설문을 수정해 주던 최순실의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개인 명의의 재단 설립을 통해서 정부의 자금으로 대기업의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아 낸 국정 농단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과 이화여대 부정 입학 비리가 밝혀지면서 촛불집회로 표현된 국민적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30일 JTBC 보도 담당 사장인 손석희 앵커는 이 보도와 관련하여 가톨릭 마스크 대상을 수상하였다.

3) A. Spadaro,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nella Repubblica di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 in *Civ. Catt.* 2014 III 403-418.

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정부와 경찰은 죽음을 그의 탓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sup>4)</sup>

2016년 11월 5일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어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촛불집회의 도화선이 되었다. 시민 누구나 촛불을 들고 모이는 집회에서 시민들은 “보다 나은 국가 사회(*una nazione migliore*)”를 염원하며 인간이 참으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질서(*un nuovo ordine*)”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였다.

촛불집회는 10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광장과 전국 도심에서 총 24차례 진행되었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안을 의결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3일 제6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에서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수 단체들의 태극기 맞불 집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지만, 한국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촛불집회를 지지했다. 보수 단체들은 태극기 맞불 집회를 전개하며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촛불집회를 비난하고 JTBC가 태블릿 PC를 조작하였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의 탄핵에 반대하기 위한 집회에서는 무력 충돌로 인하여 몇 명의 시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탄핵 그 자체는 법제적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이루어낸 것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제도 안에서의 혁명적 결과는 촛불집회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촛불집회의 전개 양상에는 세계 사회 운동사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특기할 만한 요인이 많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반년 넘는 긴 투쟁이 “평화 시위(*manifestazioni di pace*)”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촛불집회가 시작되던 초기 단계에서는 성난 군중이 공식 집회에 이후 행진을 막기 위해 세워둔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 무력으로 경찰 저지선을 뚫고자 하는 시도도 없진 않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평화, 평화, 평화...(Pace, pace, pace...)”를 연호하며 평화 시위가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웠으며, 시민과 경찰 양측 모두에게 무력 충돌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후 사람들이 차벽을 치고 있는 경찰 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버스 옆면에 접착 메모지를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양심

4) 경찰과 정부의 태도는 나뭇의 땅을 빼앗고 그를 죽인 후 그 죽음을 정당화하려 했던 아합 왕과 이 제벨의 간계를 떠올리게 한다.(1열왕 21:1-10 참조)

적인 시민들이 무고한 어린 경찰들에게 과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메모지마저도 자체적으로 모두 제거하였다.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에 참여하여 축제를 즐기듯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평화 집회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어린 중고생들과 수많은 시민이 집회가 끝나가는 밤 11시 전후로 쓰레기봉투를 들고 집회 현장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함께 청소하는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또한 국정 농단에 대한 분노가 거세지면서 집회에 참석한 군중이 점점 더 청와대 가까이 접근해서 시위를 하였지만, 단 한 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평화 집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이루어냈다. 특별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지방 번화가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3분 스피치 릴레이인 “자유 발언대(podio del libero discorso)”는 흥겹고 감동적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정치의식이 매우 고양되어 나갔다.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democrazia partecipativa dal basso)”가 집회장에서의 집합 정신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구성되고 확산되어 제도적인 정치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쳐 나갔던 것이다.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위하여 밝혀 든 촛불이 결국 합법적인 정권교체를 평화롭게 이루어낸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계절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6개월 동안 지속한 대규모 집회가 국가의 봄,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국민들이 이를 “촛불혁명(Rivoluzione delle candele)”이라고 부른다. 30년 전 1987년 민주화 투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하였지만, 한국정치는 대의 정치 제도의 한계와 정경유착, 적폐로 인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sovranità popolare sulla nazione)”임을 공표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국민의 힘을 각성하게 되고 시민 연대와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강한 열망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 대통령 탄핵과 새 대통령 선출의 과정은 아래로부터 올라온 정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깊고도 열렬한 갈망이 합법적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최고 권력에 의해서 확

인되어 체제 안에 편입된 것이다.

### 국가 통합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점에서 준비된 정치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2009년 노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유가족들의 눈물 어린 단식 투쟁에 열흘간이나 동참했으며 촛불혁명과 연대하고 민주당의 개혁과 신뢰를 재구축해 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은 2017년 5월 10일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지지율은 80%에 이르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탈한 품성과 탈권위주의적인 행보는 80%에 이르는 지지율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표현한 편지를 낭독한 젊은 여성에서 선뜻 다가가 따뜻하게 포용해주었다. 이 광경은 국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청와대 입주를 앞둔 영부인은 민원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여인을 부둥켜안고 집으로 데려가 겁려면을 대접하였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즉흥적이며 자연스럽되 격을 지나치지 않는 겸손한 태도는 국민들이 바라 마지않던 ‘인간미 넘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환영받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과 더불어 시민의식을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공로로 미국 대서양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세계 시민상’을 수상하였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언론, 교육, 대기업 개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핵발전소 사업을 포함한 각종 개발 사업에 단호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국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삼성의 실질적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도 비리와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지 못

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외압과 분단국으로서 냉전 체제의 대립에서 오는 안보 위협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가 통합과 국제 질서의 평화로운 재편을 향한 길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 한반도 평화라는 난제

이제 남북 관계를 살펴보자. 2017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평화가 없이는 정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1985년 북한은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방지조약(NPT)에 참여했지만, 1993년에 이를 철회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sup>5)</sup> 특히 최근에는 모든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2017년 9월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뉴스는 남한과 일본,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충격을 주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평범하지 않은 두 인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주고받은 말싸움은 국가 안보와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sup>6)</sup>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로 남한의 군사 작전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 남한 정부는 미국의 정치적 압력 아래에서 2007년에서 2016년에 걸쳐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일본과 연합하여 중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 발맞추어 사드(THAAD) 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였다. 미국 국내 경제의 보호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몇몇 한국 상품 일부에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남한은 사드 배치를 취소시키려는 의도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나 한국 관광 금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5) A. Macchi, «Il ritiro della Corea del Nord dal trattato di non proliferazione nucleare», in *Civ. Catt.* 2003 I 337-344.

6) G. Sale, «Corea del Nord e crisi nucleare», in *Civ. Catt.* 2017 II 339-354.



있다. 요컨대, 미국과 중국이 남한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시도해 왔다. 올해 1월 남북한 당국자들은 동계올림픽에 함께 참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에 교종 프란치스코는 올림픽 기간 중에 휴전하는 전통이 “분쟁이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하여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에(in un modo in cui i conflitti si risolvono pacificamente con il dialogo e nel rispetto reciproco)”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는 메시지를 발표하였다.<sup>7)</sup>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북한 지도자의 여동생 김여정은 단정한 외모와 조신한 행동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 및 가수들은 북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품었을 법한 냉랭한 태도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개회식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장면과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활약하는 모습을 본 남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통일을 향한 염원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올해 4월 말에 성사될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을 놓았다.

한국인들은 이제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이루어질 또 다른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물론, 남북한 양측의 지도자가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바는 제각기 다를 수 있다. 김정은은 대북 경제제재의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무장 해제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한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의 주권을 확실히 행사하면서 세계의 열강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8)</sup>

7) 바티칸뉴스, 「Appello di Papa Francesco per le Olimpiadi Invernali di PyeongChang」, <https://www.vaticannews.va/it/papa/news/2018-02/appello-di-papa-francesco-per-le-olimpiadi-invernali-di-pyeongch.html>

8) A. Spadaro, «Presente e futuro della Corea. Intervista a mons. Hyginus Kim Hee-joong», in *Civ. Catt.* 2017 IV 166-177.

## 한국천주교회의 공적 역할

한국천주교회는 1784년 유입되어 근 백 년 동안 박해를 거쳤다. 20세기 전반기를 차지하는 일제 침략기 동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교분리 정책으로 일관하며 독립운동을 거부한 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교세가 미약하였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증거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면서 교세가 급격히 성장하였다. 가톨릭 신자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차지하지만,<sup>9)</sup> 천주교의 사회적 공신력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sup>10)</sup>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교구별 정의 평화위원회는 국정의 혼란기에 시국성명서를 통해서 사회복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특히, 1987년 민주대항쟁 과정에서 한국천주교회는 역사적이고 명시적인 기여를 하였다. 김수환 추기경(1969-1998 서울대교구장 역임)은 군사독재에 저항한 최고 사령관과 같은 상징적 존재였으며, 그가 머물던 명동대성당은 “민주화의 성지(Santo sito di democratizzazione)”라는 호칭을 얻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역할을 주목할 만하다. 사제단은 1987년 호헌철폐를 주장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꺼져가던 민주 대항쟁에 불씨를 새롭게 피워 올렸다. 사제단은 계속해서 국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시장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한미군사협정 문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환경 문제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4년 이후 한국천주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을 지원하며 촛불 지도회를 이어가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길거리 미사를 봉헌했다. 또한 2016-2017년에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수도자 연합회와 평신도 사회활동 단체와 더불어 앞장서서 투신함으로써 한국천주교회가 촛

9) 한국의 종교인구는 2015년 인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종교 없음 56.1%로 나타난다. 한국 천주교인의 비율은 2005년 10.8%에서 2015년 7.9%로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탈세속화 맥락에서의 교회의 위기와 사목적 성찰에 관한 논의는 Seil Oh, 「The Crisis of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Post-Secular Society: In the Light of the Legitimacy Crisis」, 『The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s』, 76(2015), 83-113.

10)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2017년 여론조사 결과, 한국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은 천주교(32.9%), 불교(21.3%), 개신교(18.9%)로 나타난다. 홍정길,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기독교윤리실천운동』(2017).

불혁명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은 1948년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 최초로 설정되고 한국전쟁과 더불어 공고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교회와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촛불집회의 진보세력과 태극기 집회의 보수세력 간의 극명한 대립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한의 분단 상황은 시민사회의 뿌리 깊은 분열과 맞닿아 있다. 한국천주교회는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출 수 있도록 보다 통합적인 방식을 국민들에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2014년 8월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종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그렇다면 대화와 만남, 차이의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기회가 생기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끊임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모든 한국인들이 형제자매요, 한 가족, 하나의 민족임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sup>11)</sup> 남한과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가까운 미래에 교황의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 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11) Francesco, 「Omelia nella Messa per la pace e la riconciliazione, nella cattedrale di Myeongdong a Seul」, 18 agosto 2014., in [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818\\_corea-omeliapace-riconciliazione.html](http://w2.vatican.va/content/francesco/it/homilies/2014/documents/papa-francesco_20140818_corea-omeliapace-riconciliazione.html). A. Spadaro, «Il viaggio di papa Francesco in Corea. Custodia, empatia, consolazione», in *Civ. Catt.* 2014 III 403-418.

한국의 문화 속으로  
DENTRO LA CULTURA

## 한국 무속의 영성

LO SCIAMANESIMO IN COREA

다니엘 키스터 S.J.

김민 요한 S.J. 옮김

조현범 도마 감수

한국 영성의 원천은 다양하다. 그리스도교는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회원들의 저술에 매료된 한국 지성인 모임의 한 회원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한반도에 천주교 신앙을 들여오으로써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 중국에서 전파된 불교와 유교 영성의 사조(思潮)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수 세기들 앞서 한국 문화를 풍요롭게 하였다. 하지만 태곳적부터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온 영성의 깊은 곳에는 무속신앙의 토착적 원천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무속의 영성은 천주교의 영적인 전통과는 판이하지만, 무속의 영성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종교적 체험을 반추해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수단이 된다. 또한 다른 문화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은 지리적 인종적 언어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어떤 점에서는 종교적으로도 그러하다. 무속 신령들의 세계는 보편적인 높은 신들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의 신들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무당굿은 산의 산신(山神), 하천의 용신(龍神), 마을신,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어느 장군의 혼령, 돌아가신 가족의 혼백들처럼 특정한 장소에서 한국인들을 돌보아주는 토착 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해진다.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들과 영혼, 정령, 귀신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왜냐하면 신들이 혼령들과 그리고 열등한 혼령들은 잡귀 잡신들과 중첩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교의 믿음과는 상충하지만, 한편으로 그 어떤 단일한 형태나 이름으로 표현될 수 없는 하느님의 형언할 수 없음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자연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간직해왔고 굿은 바로 이 자연과의 친밀함에 성스러움의 감각을 더하여 관계

를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영신수련의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이나시오 성인은 “물질들에 존재를 부여하시는” 방식으로 세상 만물에 거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활동에 대해서 관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면서 우리가 그 보답으로써 사랑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sup>1)</sup> 무속을 믿는 이가 기도하기 위해 산에 갈 때 그녀(혹은 그)는 끊임없는 보호와 관심으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신과 소통하게 된다. 병풍처럼 솟아오른 산의 영속적인 힘, 거대한 고목(古木)의 항구한 현존, 맑은 물이 솟아나는 웅달샘의 생명을 주는 힘의 형태로 말이다. 툇 튀어나온 바위 앞에 차려진 흔들리는 촛불과 공양물 앞에서 그녀는 작은 징을 부드럽게 울리며 아이의 건강한 출산, 혹은 가족의 소원을 위해 산신이나 칠성님께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그녀가 이를 행하는 것은 우주적인 창조의 힘, 완전한 사랑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을 구하기 위함이다.

비록 농촌과 자연의 주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긴 하지만 굿의 영성은 농촌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무속 의례가 행해지는 대도시로 향하는 인구이동에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왔다. 왜냐하면, 무속의 근본적인 뿌리는 특정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생과 사, 그리고 희로애락이라는 인간 삶의 면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굿은 이승에서의 복에 초점을 맞출 뿐 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리고 굿은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영성의 형태를 띤다. 굿은 세계 평화나 보편적인 구원과 같은 범세계적 관심사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모든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는다. 굿은 매일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신들과의 만남이라는 성스러운 사건들로 변화시킨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입문 과정을 거쳐서 무당이 된다. 대부분 여성인 무당들은 자신의 집이나 의뢰인의 집, 작은 굿당, 혹은 야외의 어떤 장소에서 굿을 행한다. 간단한 음식이 차려진 상 앞에서 무당 또는 법사가 혼자 제금(또는 바라)을 치면서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모습으로 굿을 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굿은 신들을 위한 공양물이 높다랗게 쌓인 제사상 앞에서 화

1) 편집자 주.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로울라의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정제천 옮김, (서울: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2016), 235번.

려한 옷을 입은 무당과 한 무리의 악사들이 수많은 굿거리들을 온종일 벌이는 축제와도 같은 것이다. 굿거리는 보통 “기도합시다(Preghiamo)”가 아니라 “놀아보세(Giochiamo)”라는 말로 시작되며, 고음의 창과 우스꽝스러운 농담, 장구 연주, 역동적인 춤사위가 동반되어 생기가 넘친다. 천주교 성사 예절과 유사하게 굿은 구체적인 표징 위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존재와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굿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만남의 증표로서 거의 기적에 준하는 표징을 추구한다. 서울 지역에서 행하는 굿에서 무당은 술병 위에 거대한 떡시루를 올려 균형을 잡기도 하지만, 높은 대 위에 설치된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조심스레 춤을 추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압권이다. 무속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재주들이 별다른 신뢰를 주지 않지만, 믿는 이들은 이런 것들을 영험함의 표징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실제로 저승에서 들려오는 말로 여긴다.

무속을 믿는 가정은 가족의 병이나 재정적인 문제, 혹은 가정의 파탄 등으로 곤란을 겪을 때에 무당을 초대하여 굿판을 벌인다. 이때 굿은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을 영적인 세계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굿거리가 바뀌면 이에 따라 무당은 신령의 옷이나 조상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춤을 추면서 탈환 상태를 유도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령이나 혼령이 무당 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어진다. 굿을 드리는 가족은 다 함께 두 손을 비비며, 도움을 청하는 의미로 가볍게 머리를 조아린다. 굿의 효과를 믿는 이들은 신령들과 혼령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따지지 않으며, 다만 그들이 만족했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워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무덤에 물이 스민다든가 조상 제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아서 사랑하는 망자의 혼이 소위 한(恨)이라는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하다. 망자가 살아있는 이들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 한국인들의 생각은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무당은 망자의 혼을 불러내어 즐겁게 해주고 달랜 다음에 무당 자신을 매개로 하여 망자의 혼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품고 있던 나쁜 감정을 털어내고는 가족들에게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말해줄 기회를 마련해준다. 일단 감정이 누그러지면 망자는 대개 “걱정 마라(Non vi preoccupate)” 혹은 “내가

함께하마( Io sarò con voi) ” 등과 같은 위로의 말을 남긴다. 신령이나 조상신을 물리적으로 불러내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과는 상충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망자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무속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시성된 성인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왜 사랑하는 망자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오히려 망자의 영혼을 도우려 할 뿐이다. 어찌 되었건 한국의 무당은 혼령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혼령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데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무당은 가족 문제의 원인을 가족 자체 내에서 드러내기 위해 무당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감수성, 유쾌하면서도 극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무당이 대답하면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기지를 발휘하여 신령들과 혼령들을 연극적인 방식으로 불러내 옴으로써 가족 문제를 공공연히 드러내어 가족 구성원이 그 문제를 직시하도록 해준다. 이리하여 종교적 믿음, 심리치료, 심리극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샤머니즘에 관한 국제적인 학술회의에는 많은 정신분석학자들과 심리치료사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다양한 원주민 부족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금이 간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샤먼들의 전문적인 기술에서 배움을 얻고자 한다.

동해안 어촌마을에서 별신굿은 연극적 요소를 지니는 유쾌한 한마당이다. 절기에 맞추어 행하는 마을 의례인 이 축제에서 기구하는 일과 즐기는 일이 하나가 된다. 마을을 지키는 신과 다른 신령들, 그리고 조상신들에게 기원하고 그들을 즐겁게 하려고 마을 주민들은 남녀로 구성된 무당 가족을 고용한다. 이들 무당들은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무속인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당이 된 이들이다. 그들은 신령들과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자들이지 영매(靈媒)는 아니다. 게다가 일종의 엔터테이너로서 역할을 한다. 마을주민들은 고기를 잡는 물가에 천막을 치고 신령들에게 바치는 공양물로 제사상을 차린다. 천막에는 형형색색의 종이로 만든 등을 매달고, 제사상은 종이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된다. 마을 주민들은 무당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과 노동이 신령들의 가호 아래에 있기를 빌고, 신령들이 질병이나 불행에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청하며 아이를 낳는 일이나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한다.



모든 참가자들은 바닷가 작은 언덕에 있는 마을 신당까지 행렬을 지으며 나아간다. 흰옷을 입은 마을 어른이 대나무로 만든 신장대를 들고 가는데, 신장대에 달린 흰 깃발이 청명한 하늘에 나부낀다. 신당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북과 태평소, 팽과 리, 그리고 큰 징의 소리에 맞춰 신명 나는 춤을 추며 마을 신을 영접한다. 무당은 자신이 연주하는 제금(또는 바라)의 빠른 가락에 장단을 맞추며 신령에게 다가오는 새해에 마을의 안녕을 청한다. 마을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신령의 신탁(神託)을 기다리는데, 이는 무당이 잡고 있는 신대가 신비로운 방식으로 흔들리고 무당이 이를 그 증표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신탁을 받은 주민들은 다시금 행렬을 지어 신령이 깃든 신대를 호위하여 바닷가의 본래 굿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틀, 혹은 좀 더 오랫동안 북을 빌기도 하고 즐기면서 보낸다. 주민들은 집안의 복을 기원하고 신령이 내린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 이 의례를 통해 신령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마을 주민들끼리도 화목을 도모한다. 별신굿의 마지막은 신령들과 혼령들이 사람들 곁에 남아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을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중국 속담에 “혼령들을 불러내기는 쉽지만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어렵다 (È facile evocare gli spiriti, ma è difficile mandarli via)”라는 말이 있다. 별신굿은 참여자들과의 인격적인 합일을 바라시는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일치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현대의 대도시에서는 종교적 기원 행위, 노동, 유희가 다양한 집단들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마을 의례에서 주민들은 기원, 노동, 유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활기찬 영성 속에서 일체가 된다. 구약은 다윗 왕이 언약의 궤 앞에서 아이처럼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고(2사무 6,14-15), 그리스도교 전례는 예배드리는 이들로 하여금 “하느님께 환호(acclamare Dio)”(시편 66,1) 하도록 일깨운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전통적으로 장엄한 찬송과 전례 행위와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감각을 환기해왔다. 특히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투과된 빛은 이러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마치 한국의 불교 의례처럼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엄숙함과 침묵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와 달리 잘 치러진 곳에서는 북과 태평소, 징의 약동하는 리듬, 형형색색의 종이 장식, 생동하는 춤사위, 유쾌한 희극이 한데 어우러져 전형적인 한국적 삶의 기쁨을 표현해낸다. 떠들썩한 웃음소리,

흥청거리는 술자리의 소란이 굿 마당에 울려 퍼지면서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스도교 전례에는 웃음을 위한 자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마을 축제와도 같은 경신행위가 주는 신앙의 기쁨을 맛본 이들은 어쩌면 ‘왜 굿이 전례에서 웃음을 위한 자리가 없어야만 하는가?’의 질문을 던질 법하다.

한국의 무속 의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2세기경 북부여 왕국(오늘날의 만주)에서 행해졌다는 것이고,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에 적혀 있다. 영고(迎鼓)라고 불리는 의례가 그것인데, 이는 오늘날의 마을 굿에 해당한다. 음주가무와 점(占, 참가자들이 하늘에 공양물을 바친다는 점에서 굿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무당’이라는 말 자체는 12세기의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와 백제에 무당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의 무당은 의례의 시행자가 아니라 국왕에게 조언하는 예언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들이 내림굿을 받거나 가족의 혈통에 따라 무당이 된 사람들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단지 신령들의 대변인인지 스스로 예언을 하는 존재였는지 불분명하다. 한편 예언자로서 그들의 역할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를 148년 7월에 있었던 고구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사냥을 하는 동안 임금이 활로 여우를 쏘았지만 빗나갔다. 임금이 이에 관해 묻자 무당은 여우는 번덕스러운 짐승인지라 상서로운 표징은 아니라고 답했다. 무당이 계속해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덕의 길을 따르면 악운이 상서롭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왕이 답하길 “불운은 불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행운은 상서로운 것으로 드러나는 법이다. 고로 불운함이 축복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나서 임금은 그 자리에서 무당을 죽였다.

660년에 백제의 어느 무당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는데, 그는 왕에게 왕국의 운이 정점에 달하여 이제는 기울어질 때인 반면, 백제의 경쟁국인 신라의 운은 커지기 시작하여 결국 백제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달이 둥글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이니, 이제 곧 기울 때가 되었다는 뜻이고, 초승달은 아직 차지 않았으니 머지않아 보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화가 난 왕은 무당을 죽여 버렸다. 신라의 왕들은 그들 스스로가 일종의 무당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

라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5~7세기 신라의 왕관들의 형태가 샤머니즘의 우주목과 사슴 형태의 모티프가 합쳐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의 왕들이 실제로 무당이었는지를 입증해주는 역사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전 세계 각지의 샤먼들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모습은 샤먼들이 탈혼 상태에서 신령이나 혼령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또 그 증거로서 거의 기적과 유사한 표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기록에서 무당은 탈혼 상태에서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반드시 탈혼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와 유사한 묘사 혹은 풍자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유학자 이규보(1168~1241)의 시에서 드러난다. 유학자들은 세상이 합리적 이치를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당의 활동을 매우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규보는 신령들이 무당과 접신한다는 주장을 비웃는다. 그는 주름이 가득한 백발의 노파 무당이 새소리 같은 가느다란 소리로 주변의 군중들을 현혹하고 있는 모습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 늙은 무당은 칠성신의 초상 앞에서 폴짝폴짝 뛰면서 신령이 자신에게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이런저런 신탁(神託)을 이야기하는데 만일 그녀의 입에서 쏟아진 수만 가지의 말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맞으면 추종자들은 그녀를 칭송하며 어리석게도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받아들인다.

이규보는 무당들이 북을 치며 야단법석을 떠는 식으로 평화를 해치기에 이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규보가 묘사하는 무당은 오늘날의 굿처럼 수많은 신령들과 혼령들을 모시는 무당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을 모시는 무당이지만, 무당에 대한 이규보의 회의적이고 조소적인 모습은 굿에 대한 오늘날의 이미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한국 천주교와 개신교가 굿을 비난하는 데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다. 굿하는 모습들이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신명 6,4)라는 유대-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점

복과 접신, 망자의 혼령들에게 뜻을 묻는 관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다(신명 18,10-12). 굿은 하느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의 원의(願意)에 부응하도록 신령들을 조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무속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8.16)라거나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와 같은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굿에서 등장하는 초자연적 접신의 징표는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이적(異蹟)에 대한 미신적인 매혹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사람들의 원의가 이루어지도록 신령들에게 청하는 굿의 기복적 특성은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하여금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마태 7,7)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향을 남겼다. 로마의 어느 기관에서 온 외국인 교수 신부는 잠시 동안 무당을 만난 후에 무당이 악령과 소통함으로써 악마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굿의 세계에서 혼령은 완전하게 선하지도 또 완전하게 악하지도 않은 존재이다. 마치 인간 존재처럼 굿의 신령과 혼령들은 변덕스럽고 해를 끼치는 존재임과 동시에 평화롭고 도움이 되는 존재이다.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으로 묘사한 마르코 복음서(1,23-27)의 이해와는 달리 굿의 세계는 선한 힘과 악한 힘 사이의 전쟁터가 아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굿의 풍습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근대국가의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았다. 1974년 서강대에서 영미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왔을 때 나는 어느 서울 무당에게 서강대 학생들을 위해 굿을 해 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녀는 부탁을 받아들였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외국인들을 위해 굿을 녹화하는 일은 삼가 달라는 것이었는데 굿을 하는 행위가 자칫하면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녀가 제시한 이유였다.

한국의 무당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학력이 낮은 이들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많은 무당들은 현명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지녔으며 심리적으로도 명민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매우 헌신적이다. 내 친구이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 무당은 자기 자식들이 의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어쨌건 무속을 믿는 사

람들은 무당이 신령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혼령이 내려준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았다. 무당이 이러한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인 신내림의 체험은 바란다고 언제나 되는 것이 아니며, “신병(malattia dello spirito)”이라는 것을 통해서 느닷없이 생기는 것인데, 이 신병은 때에 따라서 몇 년씩이나 계속되기도 하지만 그 원인을 진단할 수 없다. 신병에 걸리면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혼령들과 만나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때 실제와 꿈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산속을 배회하다가 이따금 죽은 무당의 무구(巫具)나 옷가지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신병을 앓는 사람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당이 되라는 것인지 의심도 해보지만, 이를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한 나쁜 운명으로 여겨 거부한다. 그러나 결국 이미 무당이 된 이가 그녀에게 치유를 위해서는 몸주신과 특별한 유대를 갖는 내림굿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시켜준다.

나는 언젠가 한 번 질병과 심리적인 문제,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로 수년간 시달린 30대 초반의 여성을 위한 내림굿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믿던 개신교의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내림굿을 하는 동안 산신(山神)은 의식을 주관하는 무당을 영매로 삼아 장차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고된 인생을 살아야 할 그녀를 위해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의식을 주관했던 무당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녀에게는 본인이 직접 내림굿을 해준 신딸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애기무당이 되어 도제교육을 받고 있었다. 신참 무당은 신령들과 혼령들을 상대하는 방법, 그들이 내려왔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정해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해학과 유머를 사용하여 의뢰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문제를 객관화하는 기술들을 배운다.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한국인 교수는, 만약 내가 한국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들의 종교적인 뿌리인 무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해주었다. 오랜 시간 후에 나는 같은 이유로 천주교 신학교에서 무속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신학생들도 자신들의 종교적 뿌리를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굿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당들의 종교적 경험과 삶을 반추해

봄으로써 나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 신학생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했기를 바란다. 나는 연구에 있어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당시 그리스도교와 정부가 무속을 비난하는 편이었지만 무속은 수 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였다. 나로서는 일찍이 무속이 긍정적인 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를 밝혀내고 싶었다.

굿의 세계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나 자신의 합리화된 종교적 세계관이 과연 영적 힘들로 가득 찬 성경적 세계의 실재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동시에 나는 굿이 불러일으키는 실존적인 놀라움의 감각과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물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또한, 종이꽃이나 떡, 과일과 같이 신들께 바치는 공양물과 같은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굿의 놀라운 능력에도 매력을 느꼈다. 더욱 매력적이었던 것은 기도에 관한 굿의 관념이었는데 이는 “주님의 현존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Communio 21, 1994:113-114)과 비슷하며, 전례 학자 로마노 가르디니는 그리스도교 경배를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sup> 또한, 나는 보통의 한국인들처럼 굿의 효과를 믿는 이들이 망자들과 갖는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다. 비록 굿에서 이런 친밀함은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 너무나도 낯선 것이지만 말이다. 오늘날에는 다행히도 굿 전통에 대해 교회와 한국 정부의 반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편이다. 일부 교회에서는 굿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특정한 굿을 행하는 기술을 지닌 무당에게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신학생들에게 한국 무속을 가르치면서 나는 무당의 신내림 과정에 비추어 자신들의 사제적으로의 소명을 성찰해볼 것을 초대하였다. 신학생들은 꿈, 환시 경험, 그리고 신병이 주는 사회적 소외감 등을 자신들의 성소 경험과는 이질적인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어서 곧바로 자신들의 부르심의 체험은 어떤 운명적인 속박보다는 자유의지로 받아들인 은총이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일부 신학생들은 굿이 건강과 부귀영화, 다산(多産)과 장수(長壽)와 같은 현세적인 행복을 목표로 한

2) R. Guardini, “La liturgia come gioco”, in *Lo spirito della liturgia*, (Brescia: Morcelliana, 1980), 74-89.

다는 점, 또한 무당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생들은 무당의 고통스러운 신내림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에 매우 공감하였으며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들이 응당 가져야 할 바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무당의 삶이 사제들의 예표보다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사제상에 더 잘 부합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신학생들은 사제들이 주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명예로운 지위를 누리며 많은 것이 잘 갖추어진 사제관의 안락함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반면 무당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나는 가끔 만신을 수업에 초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만, 신학생들이 그녀의 사유방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신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경험을 지적으로 조직화한 절대적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해했다. 하지만 만신은 자신의 경험을 상상력의 논리에 의해 파악된 유동적이고 직관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그녀는 추론된 신학적 개념들이 자신의 영적 경험의 세계와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합리적 사유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보다는 징표와 경이로 가득 찬 성경적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무당이 사람들을 돌보는 데 가장 의미심장한 방법의 하나는 가족들 가운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 굿을 행하는 것이다. 장례식 직후에 종종 벌어지는 이 굿은 장례미사처럼 망자를 평화로 인도하고 또 유가족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장례미사와 굿이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굿은 망자와 그 가족의 사정에 맞춰진 의례로 밤낮으로 행해지면서 애도 중에 가족, 심지어 망자 본인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동해(東海)에서 익사한 망자를 위한 오구(오귀)굿은 해변에서 시작된다. 어느 청명한 겨울 아침 나는 어부로서 처음 바다에 나갔다가 숨진 장남을 기리는 과부를 위한 오구굿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팽과리의 박자와 가락에 맞춰 무당은 마을 신과 부처, 바다의 용신께 아들의 영혼을 해변으로 보내 달라고 기도하였다.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거센 겨울바람에 나부끼는 흰 깃발이 달린 큰 대나무 장대를 들고 있는 동안 무당의 남성 보조자는 살아있는

닭과 쌀이 들어 있는 밀봉된 상자를 바다에 던졌다가 다시 줄로 그것들을 잡아끄는 식으로 영혼을 해변으로 꺾었다. 그동안 무당은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서 파도 소리와 어우러지는 느리고 구슬픈 노래를 읊조렸다. “육지로 오려무나! 육지로 오려무나!(Vieni alla riva! Vieni alla riva!)”

천주교의 전통적인 믿음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무속 안에서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 망자의 영혼은 최후의 안식처로 곧바로 가기보다 중간적인 상태에 잠시 머물게 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망자의 영혼에 대한 정화(淨化)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화가 아니라, 흔히 한(恨)이라고 불리는, 깊은 원한이나 회한, 즉 슬픔과 고통, 분노와 오해의 삶이 영혼 안에서 맺힌 것에 대한 정화(淨化)를 위해 그 중간적 상태가 필요한 것이다. 그 과부의 아들처럼 혼인도 치르지 못한 채 삶의 정점에서 느닷없는 사고사를 당한 이의 영혼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방황한다고 여겨지고 한(恨)으로 뚝뚝 뭉쳐있기 때문에 굶으로 이를 풀어주기 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여겨진다.

오구굿의 앞부분에서 총각의 영혼은 마찬가지로 망자가 된 처녀와 결혼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 의례의 중심은 한 쌍의 인형이 된다. 이러한 영적 결혼의 목적은 피안(彼岸)인 저승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혼자만이 제대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족보에 망자가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 굶의 초반에 무당은 망자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녀를 영매로 삼아 망자는 한으로 뭉쳐진 감정의 타래를 풀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오해나 악감정을 토해내게 된다.

때때로 이런 만남은 화해의 의례가 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해의 의례란 하느님과의 화해가 아닌 가족과의 화해, 고해소의 비밀스러운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가 아니라 모두가 증인이 되는 열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이다.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은 이 만남을 통해 망자와의 극적인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슬픔과 비통함, 후회, 서운한 감정들을 해소하게 된다. 익사한 아들을 위한 오구굿에서 젊은 망자는 무당의 말을 통해 어머니를 위로한다. 무당은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이 파도 속에 가라앉을 때 “엄마(Madre)”를 목청껏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무당을 통해 아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이 원수예요. 우리가 돈이 있었다면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을 터이고 좋은 직장을 잡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물고기 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바다로 나가던 순간 “안 가면 좋겠는데” 하고 말했던 순간을 가슴이 사무치는 마음으로 떠올린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바다에 나가라고 강요했다라면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상실의 슬픔뿐만 아니라 더 깊은 회한에 빠졌을 것이다. 망자의 영혼과의 만남에 대해서 무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들이 해주는 말을 들어야 위로가 돼요.”

망자를 위한 곳에서조차 유머는 한몫을 한다. 서울지역의 지노귀굿에서는 불교의 명계(冥界)의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가 등장한다. 그는 무덤에 누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곳, 곧 죄의 심판과 처벌을 위한 장소로 혼을 붙잡아가는 역할을 한다. 고딕 성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괴수 상처럼 저승사자 역시 공포와 웃음을 자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저승사자는 굿에서 권능을 발휘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어릿광대의 역할을 한다. 입에는 떡을 물고 팔에는 길고 흰 천을 휘두르는 저승사자는 망자의 혼을 붙잡으려 하는데, 망자의 혼은 공양물이 놓인 제사상 위의 밝은 색 종이꽃에 붙어있는 하얀 종으로 표현된다. 이때 망자의 가족은 저승사자를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 사이의 난투장면은 유가족의 슬픔을 어릿광대짓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흩어주며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

천주교에서 신학적 결의론의 담론 방식으로 같고 닳은 죄의식의 분위기에서 자란 이들이나, 옛 장례미사곡 ‘분노의 날’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의 위협적인 이미지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어릿광대 같은 희화화는 매우 낯선 것이리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굿의 영성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한(恨)이라는 우리의 죄 많은 상태에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전라도 씻김굿은 한(恨)을 풀어주는 의례인 ‘고 풀이’에서 정점을 이룬다. 이는 흰 옷을 입은 무당이 흡사 우아한 독무(獨舞)와 같은 몸짓으로 기다란 흰 천의 큰 매듭들을 풀어가는 것이다. 고(매듭)라는 단어는 고통을 의미하는 고(苦)의 일종의 말장난이다. 그리고 매듭은 인생살이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화가 사람의 마음에 응어리진 한(恨)을 상징한다. 굿의 정신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며 죄를 짓게 되면 개인의 죄의식의 여부와 무

관하게 그 사람은 죄에 속박된다고 믿는다. 고 풀이는 뉘우침 여부와 무관하게 주술적으로 그 죄를 풀어주는 것이다. 어떤 신심 깊은 할머니가 고해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할머니의 대답은 “삶이 곧 죄지요(La vita è peccato)”라는 것이었다. 혹자는 그 할머니가 죄에 대해서 소박하기 짝이 없는 이해를 하고 있으며, 어떤 신학적인 담론에도 부지(不知)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악에 대한 그 자신의 충분한 이해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할머니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움직임이 얼마나 모호한지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대변해주었다.

망자들을 위한 곳은 인간의 경험 영역들을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의 모호함을 오히려 더 존중하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한다. 망자들을 위한 곳에서는 저승에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으며 분명한 희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영혼이 최종적인 평화, 빛, 자유, 그리고 어떤 성취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표현되는 상징들을 수반한다. 그러나 이는 사랑이신 하느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식의 암시를 주는 것과는 다르다. 동해안 오구곳에서 무당은 망자에게 “이제 배를 띄울 터인즉 너는 그 배를 타고 가거라(Ora dobbiamo caricare la barca e tu devi andare)”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알록달록한 종이배와 종이로 만든 연등을 길고 하얀 천 위에 천천히 놓는다. 마지막 위로의 단계에서 무당은 망자가 깃들었다고 믿는 밝은 종이꽃이 달린 작은 막대기로 흐느끼는 유가족들을 건드린다. 무당은 꽃으로 장식된 막대기를 가지고 우아하면서도 단호한 몸짓으로 천을 길게 찢으며 최종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분리하여 안식처로 보낸다.

이런 소박한 의례적 수단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차분함, 그리고 단순하면서도 품위 있는 모습은 사람들은 더욱 애도에 잠기게 된다. 망자를 떠나보내는 행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가족들은 죽음의 신비 앞에서 깊은 놀라움을 경험하며 상실과 그리움이라는 애끓는 마음을 토해낸다. 천을 찢고 꽃을 장식하는 행위는 각각 음과 양의 역설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며 죽음에 의한 분리를 꽃장식이라는 위로의

이미지로 승화시킨다. 동시에 생명을 상징하는 꽃장식 역시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의한 분리일 뿐이라는 역설을 보여준다. 아무튼, 이 주술적이며 성사와도 같은 의례 속에서 죽음에 대한 통과의례가 행해지며 이를 통해 아무쪼록 망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안식 속에 놓이기를, 그리고 유가족에게는 망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평화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망자를 위한 굿은 장례미사에서 성찬례에 상징되는 믿음, 즉 삶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일치라는 그리스도교적 믿음과는 무관하다. 망자 굿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고 망자의 삶의 신비를 의례적으로 드러내는 무당의 전문성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작두날 위에서 춤을 추는 서울의 무당의 경우에서처럼 때때로 굿은 기이한 힘 앞에서 마음을 홀리는 정도의 놀라움만을 자아낸다. 이와 달리 동해안에서 행해진 망자를 위한 오구굿은 굉장히 풍요로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경이를 선사한다. 여기에서 경이는 어떤 깊은 영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 무당의 삶과 굿이라는 의례로 표상되는 고대의 종교전통은 이른바 “고등종교(grandi religioni)”의 특징인 보편적 세계관과 윤리적 지평과 영성적 지평의 통합이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동전을 봉헌하는 과부에 관한 예수님의 우화(루카 21,1-4)처럼 무당은 굉장히 많은 것을 봉헌하는 존재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삶, 그리고 몸주신으로 모시는 신령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신령의 활동에 관한 역동적인 영성, 삶의 문제에 시달리는 이들에 대한 통찰과 연민, 신령들의 현존 앞에서 사람을 웃기고 놀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소박한 의례적인 수단을 통해 의례를 경이로움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재주 등이 그것이다. 진짜배기 무당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신을 하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무당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미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신령들과 혼령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식별하는 데 전 생애를 투신할 뿐이다. 무당의 삶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교인은 1986년 아시시에서 있었던 ‘세계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직후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의 움직임에 대해 열린 태도를 지녀야 한다. “모든 진정한 기도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신비로이 현존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sup>3)</sup>

---

3) Giovanni Paolo II, s., *Discorso alla Curia romana per gli auguri di Natale*, Lunedì, 22 dicembre 1986. [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it/speeches/1986/december/documents/hf\\_jp-ii\\_spe\\_19861222\\_curia-romana.html](http://w2.vatican.va/content/john-paul-ii/it/speeches/1986/december/documents/hf_jp-ii_spe_19861222_curia-romana.html) (접속일: 2018.8.12).

## 이문열의 신학 스릴러

UN THRILLER TEOLOGICO DI YI MUNYOL<sup>1)</sup>

페르디난도 카스텔리 S.J.

김민철 요한 S.J. 옮김

김유진 카타리나 감수

이문열<sup>2)</sup>의 이 소설을 읽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제목’, 둘째 제목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작가의 ‘국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목을 보자. 『사람의 아들』, 성서적 풍미가 느껴진다. 예수는 그 칭호를 취함으로써 예수 자신이 된다. 한편 ‘신

1) 편집자 주. Ferdinando Castelli S.J., “Thriller Teologico di Yi Munyol”, *La Civiltà Cattolica*, 3744 (2006, 6), 549-559. 한국을 주제로 한 『치빌타 카톨리카』 특별판에 이 글을 소개하는 목적은 안토 니오 스파다로가 발간사에서 밝히는 것처럼 여전히 지혜를 주는 이전의 글들을 다시 소개하여 한국 현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기 위함이다. 원서의 인용문은 이문열, 『사람의 아들』, (서울: 민음사, 20184)을 사용한다.

2) 이문열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조국의 분단이 일어난 해다. 3년 후, 한국전쟁 중에 그의 아버지는 월북한다. 이에 어머니와 아들은 수모와 차별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의 아들’로 보았다. 그 후 독학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문학에 투신해, 나중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작가로 인정받는다. 그의 작품들—소설과 수필—에는 자유와 정치 그리고 형이상학을 주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피렌체 출판인연합(L'editore Giunti di Firenze)은 그의 책 네 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그해 겨울』, 『금시조』 등을 번역, 출판하였다. 2005년 10월 21일 『전령(Messaggero)』지에서 루치아 포치(Lucia Pozzi)가 이문열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보자. 질문: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답: “키워드는 ‘자유’다. 정치적 자유만 말하는 게 아니다. 더 넓은 의미의 자유인데, 바로 인간 본성의 심부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래서 독재정권이나 경직된 사회 구조만이 아니라 이념이나 종교에서도 억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위한 것으로 불가분하게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조화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 질문: 당신의 책은 6~70년대 한국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나중에 추가로 네 권의 책이 이탈리아어로 출판인연합회에서 출판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대답: “자신들 삶의 중심 주제를 성찰하는 것이다. 작품을 쓰기 위해 나는 수많은 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다. 그중 성경은 다섯 번 읽었는데, 내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으며,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텍스트다. 내 책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한국 개신교는 급속한 성장을 보였는데, 엄격하고 억압적인 규율이 그 당시 개신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삶의 표징을 주고자 하였다. 우울하고, 판단하고, 강박적인 신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는, 자유와 내적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내가 제시하고자 한 원리는 영원하며, 모든 극단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질문: 당신의 작품은 종교 일반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나? 대답: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충만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당신은 신앙인인가? 대답: “나는 실존주의자다. 어떤 절대적 의미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처는 가톨릭이지만.” 질문: 당신이 보기에 신앙이란 무엇인가? 대답: “인간이 깨달음을 얻고, 더 잘 살고, 세상과의 조화 속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종교는 긍정적이다. 반대로, 정신과 행동을 속박하는 것이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다.” 참조. Yi Munyol, *Il figlio dell'uomo*, trans. A. De. Benedittis, (Milano: Bompiani, 2005).

학 미스터리'라는 설명은 매혹적이다. 미스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장르로, 그레 이엄 그린(Graham Greene)을 떠올리게 하며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작가의 국적을 보자면 작가 이문열은 서울 태생의 한국인이다. 2005년에 열린 '프랑 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서울의 가장 유명하고 성공한 작가 중 한 명이다. 최근 출판된 그의 책은 한국에서 이미 이백만 부 가량 판매된 바 있다. ... 그 책은 작가 자신이 말하듯 '신학 스틸러몰'로 1979년 초판이 나온 이래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쳐 현재 판본이 나왔다."<sup>3)</sup> 현재 이 소설은 작가의 이전 작품들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사람의 아들』은 장편소설로, 읽기가 지적으로 만만치는 않다. 작가는 액자소설 기법을 사용할 뿐 아니라 액자 안에 그럴듯하고 진중한 신학 논설로 동방 고대 종교 교들의 교리를 풀어 놓고 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식 표피적 성격으로, 소설은 때때로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혼란이 되곤 한다. 작가의 생각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탄탄한 서사 구조를 지니고 묵직하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자유, 악, 고통, 사탄의 존재 및 공관복음 속 신비로운 인물 예수에 관한 딜레마를 다룸으로써 도스토옙스키적 분위기를 드러내기도 한다.

### 탐정물 같은 도입부

소설의 첫 문장들은 독자에게 탐정소설의 분위기를 풍긴다. 산길을 가던 행인 한 사람이 한 구의 시체를 발견한다. "서른 두셋 정도로 보이는 길고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 예리한 흥기로 난자를 당한 듯 가슴 부분에 피가 두껍게 굳어 있었다."<sup>4)</sup> 희생자는 근처 기도원에서 목격되었다. 기도원의 황 전도사가 그를 알아보았다. 이름은 민요섭, 명석한 신학생이던 그는 복음의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데 열심이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양말 한 켤레 속옷 한 장 여분으로 지내는 법이 없었고, 또 방학이면 고아원에서 무료 봉사를 하거나 나환자촌에서

3) 루치아 포치의 이문열 인터뷰에서 인용함.

4) 이문열, 『사람의 아들』, 14.

지낼”<sup>5)</sup> 정도였다. 그러다가 교수들과 신앙 문제로 언쟁하고 신학대학을 중퇴했고 결국 “하나님과 교회(Dio e la Sua religione)”, 즉 그리스도교를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사를 담당하는 남 경사는 이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민요섭은 누구인가? 어디서 무얼 하고 살았는가? 누가 그를 죽였나? 그의 종교적 모험은 어떤 것이었나?’ 마지막 질문은 민요섭이 성경 표지에 적어 놓은 라틴어 문구에서 떠올랐다. “Desperatus credere potes, mortuus vivere potes(이제 너는 신앙할 수 있다. 절망했으므로, 살 수 있다. 죽었으므로).”

남 경사는 민요섭의 신학대학 시절 교수들을 탐문하면서 그가 일본 실천주의 신학자 가가와 도요히코의 추종자가 되어 고대 그리스도교 이단인 오피테스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피테스는 성경의 뱀을 지혜의 사도로 숭배하고 사탄을 지혜의 영 또는 신의 또 다른 속성으로 믿는 이단이었다. 또한 남 경사는 수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몇 가지 불편한 사실을 인지한다. 민요섭은 한편에서는 “치부(致富) 수단”으로 변한 교회와 싸우며 가난한 이를 돕는 데 헌신하는, 급진적인 신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한편으로, 장로의 부인과 간음하고, 교회 신축을 둘러싼 해명을 요구하며 결국 교회의 분열을 조장한 “사탄의 자식(figlio di Satana)”이라는 평판 또한 따라다녔다.

남 경사가 입수한 그의 노트 중 한 권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어찌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인류에게 재난은 닥쳐오는가’, ‘부유한 자, 힘센 자,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무(無)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여 무(無)인가’, ‘세상은 믿기 위한 미신으로 가득하다. 어찌면 종교야말로 그 같은 미신의 가장 기교로운 형태가 아닐는지.’<sup>6)</sup>

이 구절은 민요섭의 모반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제공해 준다. 현재의 신앙은 이성애 반하며, 예수가 행한 가르침은 실패했고, 종교는 미신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속 확신은 굳어진다. 새로운 종교를 세워야 한다는 것. 새 종교에서

5) Ibid., 21.

6) Ibid., 56.

는 아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죄와 악의 개념은 수정되고, 미신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은 여러 권의 노트로 구성된 ‘쿠아란타리아서(書)’에 드러나 있었다. 남 경사는 민요섭의 노트들을 읽으며 살인자를 찾는 단서를 발견할지 모른다는 바람에 더해 종교 논의 전개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흥미를 느낀다. 소설의 상당 분량은 이 노트들을 옮겨 오는 형식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 아하스 페르츠에 대한 헛된 연구

민요섭의 어떤 노트에는 이런 언급이 있었다. 동방에서 온 세 사람—마법사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에게 경배한 후 어떤 별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별이 헤로데와의 조우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오직 재앙의 별로만 받아들인 것은 그들 세 동방인의 맹목이나 다름없는 편견과 무지였을 뿐, 그 별에게는 또 하나 비추어야 할 위대한 섭리가 있었다. 그 시각 벨엘 부근의 한 삼마이 학파 율법사 집에서 진정한 사람의 아들 아하스 페르츠가 태어나고 있었음이 바로 그랬다.”<sup>7)</sup> ‘쿠아란타리아서(書)’는 신인(神人) 아하스 페르츠의 모험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소년은 천재적인 지적 능력과 뛰어난 용모를 지녔다. “야훼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 선지자의 가르침과 예언에 대해 …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젊은이는 아무도 없었다. 언어를 배우는 능력 또한 남달라서 … 많은 방언(方言)을 익힐 수 있었다.”<sup>8)</sup> 신비로운 성품의 소유자였던 그는 인간의 불행 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급기야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해 다른 비전을 선포한다. “그는 결코 말씀의 단순한 육화(肉化)여서는 아니 된다. 오는 그는 무엇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오는 그는 반드시 세계의 열쇠를 가지고 와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가없는 육신을 주립에서 구해 줄 빵이며, 둘째는 우리의 나약한 정신을 죄악에서 지켜 줄 기적이며, 셋째는 명목과 잔혹의 역사에 의와 사랑의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지상의 권세다. 이 셋 중 어느 것

7) Ibid., 60.

8) Ibid., 74-75.



하나도 빠지면 그는 결코 우리들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sup>9)</sup>

청년이 된 아하스 페르츠는 대부호 아삽의 아내인 사라와 성적 모험을 즐기는데 이는 그의 영혼을 어지럽힌다. 그녀는 희열에 사로잡히나, 그는 죄의식에 고뇌한다. 왜 죄인가?

“그녀는 … 말했다. … 그까짓 계명, 그것은 늙은이와 제관들의 것이지 우리들의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든 우리가 기뻐할 것과 즐길 수 있는 것은 무턱대고 금지하는 호렘의 심술궂은 망령이 내린 것이지.”<sup>10)</sup> 아하스 페르츠는 사라와의 관계를 끝내지만 이후 그는, 다른 이와 불륜을 계속한 그녀가 투석형에 처해지고 “말씀의 돌 무덤(*le pietre del Verbo*)”에 깔리는 걸 목격한다. 아하스 페르츠는 좌절에 빠진다. 사라의 말이 맞았다. 죄는 인간이 발명한 것일 뿐이다. 카인은 잘못이 없다. 단지 죄를 범하도록 강제당한 것이기에. 오히려 야훼가 그를 도구로 이용한 것일 뿐이다. “모두 야훼 하나님의 의지 안에(*ogni cosa dipende dal volere di Jahvè*)” 있다면 카인이 저지른 행위의 탓도 결국 그에게 돌려야 한다.<sup>11)</sup> 아하스 페르츠는 아버지와 신학적으로 격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의 말이 더 일리가 있다.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 이성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야훼가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의 나약한 의지(*la nostra debole volontà*)”에 책임을 물으려 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운명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사탄의 추종자(*un uomo di Satana*)”가 된 아하스 페르츠는 회당에서 쫓겨나고, 부모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다가 끝내는 여러 종교의 교의를 직접 보고 알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도는데 이집트, 페니키아, 시리아, 페르시아, 인도, 로마 등 이역만리를 방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례의 여정에서 그를 지탱한 건 “젊은 날의 일부를 위악(偽惡)의 수렁 속에서 비틀거리게 한 종족의 오래된 신에 대한 실망을 달래줄 새로운 진리와 신”<sup>12)</sup>을 찾으리라는 희망이었다.

9) Ibid., 71.

10) Ibid., 80-81.

11) Ibid., 89.

12) Ibid., 125.

이 시점에서 이문열의 소설은 그 당시 종교 일반에 대한 ‘르포(reportage)’ 형식으로 변모한다. 복잡하게 얽힌 교의와 의식, 마술적 관습과 미신, 우매와 사기 등에 대한 최근 지식을 작가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국 아하스 페르츠가 신성으로 만연한 우주 앞에서 피로와 환멸을 느끼고 마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0년간 “새로운 신(nuovo Dio)”을 찾는 모험 끝에 결국은 “치참한 실패(miserabile fallimento)”를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여정인 로마에서 그는 해를 알려고 관찰하다 눈이 멀어 버린 한 사람을 만난다. 아하스 페르츠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저 장님이 두 눈을 잃은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음에 분명하다. 내가 지난 십 년 동안 세계의 끝까지 떠돌며 그렇게도 많은 신들을 만난 것은 해를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래 쳐다본 저 장님의 노력과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 뜨거운 햇볕이 그의 눈동자를 태워버린 것처럼 내가 본 그 수많은 신들의 교의와 신화는 내 마음의 눈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제는 나 또한 신의 존재를 인간의 관념이 빚어낸 어떤 추상 이상의 것으로 의심하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은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저 태양이 분명한 실체로 불타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섭리도 실존의 숭고한 빛으로 이 무한한 시공을 관통하고 있다...”<sup>13)</sup>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의 계시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내가 신을 찾아 떠날 때가 아니라 신이 나를 찾아올 때이며, 신을 쫓을 때”<sup>14)</sup>이다.

#### 사탄으로서의 아하스 페르츠, 예수를 만나다

고향에 돌아와 한 달을 보낸 후, 아하스 페르츠는 신을 만나기 위해 ‘쿠아란타리아’라고 하는 광야에 은거한다. 그는 “세속의 먼지와 지식의 때를” 벗겨내기 위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단식과 묵상에 잠긴다. 40일째 되던 새벽 그는 한 외침 소리에 깨어난다. “사람의 아들이여, 이제 때가 왔다. 그대의 길고 애절한 부르짖음은 드

13) Ibid., 243.

14) Ibid., 243.

디어 나를 무위와 무명에서 끌어냈다.”<sup>15)</sup> 그에게 말하는 이는 누구인가? “나는 시작이요 끝이며, 영원이요 찰나며, 완성이요 개연이며, 절대로 상대이다. … 나는 [야훼]이며, 또한 그의 부정(否定)이다.”<sup>16)</sup> “그 이름 없는 위대한 신성(Il Grande Spirito senza nome)”은 “왜곡되고 와전된 창조의 진실로부터 우주의 시원과 궁극을, 인간의 숙명 및 그 지향과 당위를” 아하스 페르츠에게 전한다. “일찍이 기독교의 적으로 간주되어 박멸된 고대의 어떤 밀의 종단의 교의 속에 그 대강이 살아남은 가르침이었다.”<sup>17)</sup>

‘위대한 신성’과 헤어져 광야를 벗어나던 아하스 페르츠는 목상에 잠긴 한 젊은이를 만난다. 하지만 그 청년이 “십팔 년 전 어린 자신이 테도스에게 이끌려 인간의 비참을 살살이 돌아보고 있는 동안 성전에서 제관들과 말씀을 다투어 그들을 놀라게 했던 야훼의 아들 예수란 것을 알지는 못했다.”<sup>18)</sup> 아하스 페르츠의 내면에서 어떤 변모가 일어난다. 히브리 율법 학자의 아들이자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섰던 순례자인 그는, 이제 사탄의 사자(使者)로 변신 아니, 사탄의 육화가 된 것이다. 그러한 ‘옷’을 입고서 그는 예수에게 다가가 제안한다. 돌을 빵으로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천사가 내려와 그를 모든 해악에서 구해 줄 것이니 절벽에서 몸을 던져 보고,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per far rifulgere l’antica gloria di Davide)” 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쟁취하라고.

예수는 이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l’uomo non vive di solo pane, ma anche delle parole di Dio)”이라고 말하며 세 가지 제안을 거절한다. 또한, 하느님을 ‘감히 시험해서는’ 안 되고, 지상의 권세, 자부심, 육체적 쾌락 및 자아의 헛된 영광은 자신의 관심이 아니며, 자신은 아버지께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야훼(il Dio di Abramo e di Isacco: Javè, il creatore dell’Universo)”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혹자에게 말한다. “더는나

15) Ibid., 258.

16) Ibid.

17) Ibid., 259.

18) Ibid., 260.

를 방해하지 말고 이만 물러나시오. 지금 당신을 부추기고 있는 그 악마의 가르침을 따라 사투한 지혜의 길이나 가시오.’ … 뒷날 예수를 통해 그 만남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한결같이 아하스 페르츠를 사탄으로만 그려내고 있다.”<sup>19)</sup>

민요섭은 이 외경 텍스트—언제나처럼 그의 노트—에 기반해 아하스 페르츠가 예수를 다섯 번 더 만났다고 서술하고 있다. 소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miracolo dell'indemoniato)”<sup>20)</sup>에서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자렛 사람 예수여, 왜 또 우리를 간섭하려 드는가요? … 나는 당신을 아오. 당신은 거짓 ‘사람의 아들’이며, 거대한 독선의 육화요, 그러잖아도 그을리고 있는 이 대지에 더 큰 불을 지르러 왔고, 피땀으로 일구어놓은 우리의 포도원에 케케묵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의 상속자로 왔소. … 그러나 제발 이대로 돌아가시오. 가서 당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시오. 이 땅에는 그분이 받아야 할 아무런 빛도,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를 지금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스스로 높여주는 사랑이며 축복이라는 것을.”<sup>21)</sup>

한편 또 다른 만남에서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를 사탄의 교리로 “인도하려고 (convertire)” 시도한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죄지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요. 고통스러운 자유를 회수하는 것이요.”<sup>22)</sup> 죄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그것은 말씀이 만들어낸 불필요한 관념일 뿐이지 않소?”<sup>23)</sup> 아버지의 사랑을 들먹이며 속이려 들지 말라. 신은 귀가 먹었고 저 멀리에 있소. 사람들을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부터의 자유(libertà dal Verbo)”를 주시오.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짐”<sup>24)</sup>을 지우지 마시오. “진리도 은혜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시오.<sup>25)</sup>

19) Ibid., 268.

20) 마르코 복음(1,23)에는 이렇게 나온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21) Ibid., 271.

22) Ibid., 287.

23) Ibid., 286.

24) Ibid., 277.

25) Ibid., 274.

예수는 아하스 페르츠 안의 “사탄의 아들(figlio di Satana)”을 알아보고 대답한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거짓 예언자나 사악한 지혜의 입을 빌려 수없이 반복된 사탄의 주장일 따름이오. 한 분이신 내 아버지에 대한 시기와 인간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속임수이며, 공의(公義)로 띠를 삼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인간의 영적인 발전을 부정하려 드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이오. 그래, 결국 당신의 주장에는 저들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와 불신 이상 무엇이 있소? 또한 저들의 존재를 무의미와 맹목 속에 방치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사탄의 길을 열고 그것을 고르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오?”<sup>26)</sup>

### 태초에 ‘커다란 존재’가 있었다

민요섭의 노트는 십자가 위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다. 아하스 페르츠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혀 있다. “[아하스 페르츠의] 모습도 당시의 천한 화공(靴工) 그 대로 전해졌다. 곧, 맨발에 가죽 무릎받이를 하고, 손에는 깃다 만 로마군의 군화(샌들)와 실 펜 바늘을 든 채, 기약 없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없이 이 세상을 떠돈다는 것이었다.”<sup>27)</sup>

글을 다 읽은 남 경사는 당혹스러워한다. 그리스도교 신의 대립 향으로서 초월적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아하스 페르츠가 사막에서 조우한 “위대한 신성(Grande Spirito)”과 “말씀(Verbo)”에 반대되는 그의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침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두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민요섭과 수년간 뜻을 같이하며 지내온 조동팔의 집에서 남 경사가 발견한 노트로부터 찾을 수 있다. 조동팔은 민요섭의 글들을 엮어 성경을 새로 쓴 후 ‘쿠아란타리아서’라는 제목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신학 논설은 일종의 교의적 혼합으로, 그 안에는 여러 종교와 우주론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 일부 내용은 이러하다.

26) Ibid., 278.

27) Ibid., 300.

“태초에 커다란 존재가 있었으니 우주의 모든 것은 그 속에서 하나였다.”<sup>28)</sup> 그것은 두 개의 원리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즉 정의와 자유, 선과 악. 쿠아란타리아서의 화자로서 ‘위대한 지혜’라고 지칭되는 악이 이렇게 말한다. “원래 우리는 일체이며 동격이었고, 우리를 연결하는 원리도 저 태초의 존재를 혼돈이 아니라 한 완성으로 설 수 있게 한 그 조화와 질서였다. 지혜 없는 선과 마찬가지로 선 없는 지혜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 죄는 지혜 없는 선의 딴 이름이며 악은 선 없는 지혜의 딴 이름에 다름 아니다.”<sup>29)</sup>

‘커다란 존재’는 영원한 고요와 정지의 상태에서 오는 무한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도구인 말씀은 자신의 생명조차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창조를 완성하는 순간 자신은 소거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말씀은 독단의 의지에 따라 육화했고, 모든 존재를 압도하여 전창조계를 선과 연결했다. 이 사건은 시원적 ‘커다란 존재’의 합일성을 파괴하여 두 개의 구성 원리를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이 만물을 지배하고 악을 억제하게 하였다. 하지만 악을 통제하려는 선의 시도는 실패했고,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악의 사자인 뱀의 유혹에 따라 금지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은 데 대한 징벌로 에덴에서 추방된다. 말씀의 “자기도취”와 “독선”으로 모든 인간 본성이 심판과 단죄를 받은 것이다.

“광기 어린(*obnubilati dalla follia*)” 예언자들과 해설자들은 ‘사람의 아들’이 원래의 조화를 복원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는 ‘위대한 지혜’의 ‘알테르 에고’(alter ego: 또 다른 자아)—‘선’—에 편재해 있던 위격이자 “그 독선과 말씀의 육화”였다. ‘위대한 지혜’는 이 ‘사람의 아들’은 거짓되었다며 제 이들인 아하스 페르츠-사탄을 보내면서 말한다. “너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아들 … 너는 그저 한 무력한 사람의 아들로 그와 싸워야겠지만, 그래도 이 대지와 인간들은 언제나 네 편에 있음을 잊지 마라. 보다 높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의 동류를 위해 네 힘을 다 쏟고, 멀리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너희가 밭 딛고 선 대지를 위해 네 슬기를 다 펼

28) Ibid., 328-329.

29) Ibid., 330.

쳐라.”<sup>30)</sup>

예수는 죽고 땅에 묻혔다. “설령 그가 다시 온다 하더라도, 그는 너희 각성의 돌팔매에 쫓겨 또 한번 울며 그를 보낸 이에게로 되돌아가야 하리라.”<sup>31)</sup> 조화와 태초의 질서 회복은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섬겨야 할 신이 있다면 그는 바로 그때의 하나로 된 우리이다.”<sup>32)</sup> 그리하여 인간들은 완전하고, 자유롭고, 오직 이 땅에만 충실한 이들이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르는 믿음과 섬김에서 해방될 것이며, 선과 악 모두가 ‘커다란 존재’로부터 나옴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사건이 해결되다

노트를 다 읽은 남 경사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선과 악이 신적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가 보기에 어불성설이었다. 아하스 페르츠의 모든 반그리스도교적 이론들이 결국 모호하고 애매한 신을 발견하고 끝나고 만 게 그에게 실망스러웠다. 의심 한 줄기가 그의 마음을 스쳤다. 민요섭은 자신의 논리가 지닌 불투명함을 자각하고서 원래의 종교적 비전을 바꾼 것 아닐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동팔의 분노를 불러온 게 아니었을까? 추적 끝에 하나씩 조동팔의 실제와 대면했을 때 남 경사의 심증은 더욱 굳어졌다. 조동팔은 분명 그들의 신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민요섭을 살해했다고.

여러 해 동안 그들은 같이 살면서 사상과 실천 계획, 열정을 공유했다. 의기투합한 그들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돕기 위해 절도와 강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룩한 책—쿠아란타리아서—을 직접 쓰며 그것을 ‘성경’으로 삼으려고 했다. 조동팔은 동지 민요섭의 지성과 전망에 압도되어 그를 따랐다. “그는 내가 섬기던 우상을 산산이 깨뜨리고 소중히 품고 있던 믿음과 가치 체계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린 사람이었소. 그리하여 그 폐허 위에 이제 막 새로운 세계를 건설

30) Ibid., 345.

31) Ibid., 346.

32) Ibid., 347.

하려다가 홀연히 나를 떠났던 것이오….”<sup>33)</sup>“옛 하나님과 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난 것이다.

사실 민요섭은 여러 형태의 신학으로 뒤섞인 교의들이 주는 도취에서 깬 후 새로운 신을 창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기껏해야 조잡한 형태의 무신론을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들이 제단 위에 세우려 했던 “이성신(II Dio della Ragione)”은 의심스럽고 딱하기 그지없는 도덕성에 대한 신적 재현이라기보다 “광기의 현현(manifestazione di follia)”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는 추종자인 조동팔에게 말한다. “과장된 참회와 더불어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겠다고.”<sup>34)</sup>

조동팔은 눈물로써 무릎 꿇고 부탁한다. 당신이 창조한 신을 부수지 말아 달라고. 자기에게 전수한 비밀을 없던 것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소용없었다. 용서 역시 불가능했다. 민요섭은 그들의 실패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회개는 하나의 죄였다. 그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이상 새로운 신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꿰어앉아 빌며 … 눈물로 애원했소.”<sup>35)</sup> 원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헛된 부탁일 뿐이다. 결국, 그는 칼을 든다.

“그는 별로 놀라지도 피하려 들지도 않았고. 내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입가에 얽은 웃음까지 띠는 것 같았소. 눈길도 온갖 신비함을 다 끌어모은 듯한 그런 어떤 것이었소… 갑작스런 증오로 눈먼 나의 칼이 그의 가슴을 난자할 때까지도…”<sup>36)</sup> 남 경사에게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던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한다. 상체를 아래로 폭 숙여 복부를 찢는 듯한 고통에 꿈틀거린다. 남 경사가 심문하기 전 그는 술과 함께 독극물을 삼켰다. 서서히 죽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전에 그는 민요섭이 부정한 새로운 신에 대한 신앙을 선포한다.

## 결말에 대하여

33) Ibid., 358.

34) Ibid., 367.

35) Ibid.

36) Ibid., 369-370.



『사람의 아들』은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야심 찬 소설이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첩된 서사가 깔려 있다. 위대한 여러 종교의 세계에 대한 민요섭의 편력, 비극으로 끝나게 될 조동팔과의 관계, 예수와 아하스 페르츠-사탄의 사막에서의 만남. 이 세 개의 서사는 서로 빛을 비추며 작품의 중심 의미와 운동으로 수렴된다. 다소 장황한 묘사에서 작가의 자만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건은 경찰 조사뿐 아니라 두 젊은이의 종교 사상 변화로 역동적인 생명력을 얻고 있으며 심오한 의미가 있는 일련의 극적인 사건들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문열은 소설가로서 사실을 서술하고, 심리와 관념을 분석하며, 몇몇 종교적 윤리적 개념의 발전을 묘사하는 데 집중할 뿐, 작품 전면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섬세한 독자라면 작가가 민요섭이란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으며, 민요섭의 최종 선택에 대한 의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민요섭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종교를 배반하고, 종교를 영리적 제도로 격하하고 영적 움직임을 제거함으로써 사람들의 필요에서 유리된 어떤 이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자들과 그 움직임에 반항하는 사람이다. 소설에서 언급된 에피소드들은 이러한 점에서 분명 의미심장하다.<sup>37)</sup> 자유가 결핍된 채 추상적이고 율법적인 신학이 지배하는 현실은 이 젊은이를 원래의 (개신교) 신앙고백에서 멀어지게 하며, 만족할 만한 종교를 다른 곳에서 찾도록 이끈다.

하지만 추구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다? 사람들의 더 깊은 필요에 응답하는 새로운 신을 창조한다? 이러한 전망은 그의 젊은 추종자 조동팔을 열의에 불타게 했다. 하지만 민요섭 본인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그 계획의 부조리와 위험을 깨닫고 원래의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복귀한다. 이문열 자신은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신앙은 자유를 박탈하거나, 엄격하고 억압적인 규율을 제시하지 않으며, 우울하고 징벌적이며 강박적인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와 형제애와 나눔의 전망을 일깨우는 신앙이다. 예수의 신은 성경 저자들의 절박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신이어야만 했다. 사랑과 구원의 신이기 때문이다.

37) 참조. 41쪽 이하.

사막에서 예수와 아하스 페르츠-사탄이 서로 만나는 장면과 이어지는 부분은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문열은 복음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지면 위에 재구성한다. 도스토옙스키적 분위기가 명백히 드러나면서도 적지 않은 부분이 독창적이다. 두 명(예수와 아하스 페르츠) 모두 진리와 구원의 전령 역할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서로 반대되는 지점에서 있다.

예수는 아버지와 하느님 나라에 정향 되어 있는 반면 아하스 페르츠-사탄은 인간과 이 땅으로 향해 있다. 전자가 영원성에 대해 말하는 반면 후자는 시간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수가 선포하는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며 아하스 페르츠-사탄은 인간의 뜻을 지지한다. 예수의 명징함은 그 반대자의 모호함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진정한 ‘사람의 아들’은 과연 누구인가? 다시 한번 작가 본인의 대답은, 선포가 아닌 암시의 방식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기만 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육화한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인가? 이문열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그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자가 아니며 스스로 그러하길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성찰로 이끌면서 종교적 선택의 여정에 있어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교인의 관점에 따라 그의 신학적 결핍과 부정확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 대신에 그가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존중과 경탄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한국인 작가에게 이러한 요소는 분명 사소한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어판**

[laciviltacattolica.it](http://laciviltacattolica.it)  
[info@laciviltacattolica.it](mailto:info@laciviltacattolica.it)  
[facebook.com/civiltacattolica](https://facebook.com/civiltacattolica)  
[twitter.com/civcatt](https://twitter.com/civcatt)

**한국어판**

[korcuria@gmail.com](mailto:korcuria@gmail.com)  
[laciviltacattolica.kr](http://laciviltacattolica.kr)